



나눔은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

미주동창회 나눔위원회

2016년이 저물어 가고 있다. 미국에선 대선을 통해 세상을 뒤엎고 Trump가 앞으로 4년을 이끌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한국도 여소야대가 된 연초의 총선에 이어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현 정권은 만신창이가 되고 1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햇불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미국은 어떻게 될 것이며 우리의 조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기대와 걱정이 교차한다.

본 미주동창회에도 금년에 큰 일이 벌어졌다. 지난 6월말에 열린 평의원회의에서 '나눔위원회'를 구성해 회칙에 밝혀져 있는 동창회 설립목적에 명실공히 부합하는 동창회가 되어보자는 제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이다.

1950년대부터 이민의 삶을 시작한 미주동문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낯선 땅에서 각종 난관들을 극복하고 미국의 주류(Main Stream) 속에서 활발한 업적을 이루어 낸 동문들이 부지기수다. Socio-economic Status도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동문들도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것 같다. 물론 모두가 다 성공적인 이민의 삶을 이루어 낸 것은 아니다. 침묵의 다수의 동문들이 여러가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동문들이 각 지역 별로 모인 것이 동창회다. 알래스카와 하와이까지 25개의 미국내 지부를 아우르는 미주(총)동창회가 존재하고 있다.

매달 동창회보가 배달되는 가정이 7,000이다. 500여 가정은 부부가 동문들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뜻으로 모여 놀라운 인프라를 구성해 놓은 단체나 모임을 미국내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 60여년의 이민의 삶에서 쌓아올린 막대한 자원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자.

'나눔위원회의 구성과 임무'에 대한 회칙개정안(오른쪽 참조)이 전자투표를 통해 134명의 평의원중 70명이 투표, 그 중 찬성 65, 반대 5로 통과되었다. 그리고 이제 이 나눔위원회에 참가할 위원들의 신청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란 "귀족성은 의무를 갖는다"를 의미한다. 보통 부와 권력, 명성은 사회에 대한 책임과 함께 해야 한다는 의미로 쓰인다. 미주동창회가 보여야 하는 사회에 대한 책임과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다. 눈부시게 발전한 조국의 현 모습에 우리 동문들이 각 분야에서 기여했다는 자부심과 더불어 한국의 현 사태의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청와대 수석들이 우리와 같은 서울대 동문이라는 사실이 2016년 세모에 마음을 숙연케 한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잘 극복하고 더 밝은 사회, 더 아름다운 사회를 함께 이루어 나가길 소망한다.

- 나눔 위원회 세칙 - (Rules and Regulations of Charity Committee)

제 1 조 (목적)

본 동창회의 설립 목적 중의 하나인 나눔과 봉사를 동창회를 통하여 조직적이며 효과적으로 실천함으로써 도움이 필요한 동문들은 물론 더 나아가 도움이 필요한 지역사회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구성)

본 위원회는, 나눔과 봉사에 관심이 있거나 현재 실천하고 있는 본 동창회 회원으로서, 위원장을 포함,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가능한 한 각 지부에서 1명 이상의 위원을 포함한다). 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구성된 위원장 및 위원은 평의원 회의에서 인준을 받는다.

본 위원장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운영위원회 (Steering Subcommittee)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 위원은 약간 명으로 하며 본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임명한다.

제 3 조 (임기)

위원장 및 모든 임원의 임기는 4년이며 연임될 수 있다. 위원이 임기 중 임무 수행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하며 위원장은 잔여 임기를 위하여 새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운영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

임될 수 있다.

제 4 조 (임무 및 운영)

본 동창회의 다양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나눔과 봉사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임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조달을 위해 노력한다.

위원회는 매년 회의를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On-line Meeting으로 대신할 수 있다.

모든 회의의 의결은 참석위원의 과반수를 원칙으로 한다.

위원회의 모든 계획 및 활동은 매년 평의원 회의에 서면 보고하여 인준을 받는다.

임무 수행에 관련된 모든 서류 (사진 포함) 및 기록을 영구 보관한다.

제 5 조 (재정)

본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본 동창회 기금, 기증 (본 동창회 내부와 외부) 및 모금행사를 통하여 조달한다.

재정에 관한 모든 서류는 영구 보관한다.

제 6 조 (감사)

본 위원회는 정기감사를 받으며 그 외에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의 제 4 조와 제 5 조에 관련된 서류 및 모든 기록을 제시하여야 한다. IRS Audit을 위하여 영문 번역본을 유지한다.

주: 초대 나눔위원회의 임기는 2016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CHANGE SERVICE REQUESTED

NON-PROFIT
US POSTAGE PAID
LANSDALE, PA
PERMIT No. 95

Inside

본 회보에 게재된 기고문은 회보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회보에 게재된 취재기사 및 동문글은 본 회보가 Copy Right를 갖습니다.

- | | | | |
|-------|------------------------------|-------|---------------------------------|
| 1 | 나눔위원회 세칙 통과 | 14-17 | 남가주/ 뉴욕/ 시애틀/ 특집: 나눔이야기 |
| 2 | 최승홍-한반도 평화조약/ 유안진-축시 | 18-19 | 김현영-조선희상/ 김석두-설산/ 고영주-나의지기 |
| 3-4 | 채병간-미군 주둔비/ 모교소식: 시상/ 시국집회 | 19 | 정원자-모수미 선생님/ 이태상-네 삶을 사랑하라 |
| 5 | 동문동정: 오수형 감독/ 김민지 한국복식사학자 | 20 | 신간: 황두용/ 장용학-원형의 전설 |
| 6-7 | 인터뷰: 오형원/ 의료봉사: 홍건/ 필라 가정상담소 | 21 | 김봉전-굴뚝청소부/ 정유석-Death and Maiden |
| 8-9 | 지부소개: 조지아 | 22-23 | 김지영-유순의거리/ 이선화-판도라/ 김영-몽블랑 |
| 10 | 남가주: 연주회/ 사진전/ 법대정기오찬/ 필라골프 | 23-24 | 이은중-대금/ 김수영-설리/ 의학: 박규형 |
| 11-13 | 필라/ 워싱턴DC/ 지부별 송년모임 | 25 | 이달의 사진: 노현숙/ 김창수: 칵테일상식 |

2016년 모교 교육상 및 학술연구상 시상

모교(총장 성낙인)는 교육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창의적인 강의로 교육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2016학년도 서울대학교 교육상' 수상자와 창의적이고 활발한 연구활동으로 탁월한 연구실적을 낸 '2016학년도 서울대학교 학술연구상' 수상자를 선정하였다.

특히 개교 70주년을 기념하고 후보자들의 우수한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축하 및 격려하기 위하여 수상자를 전년(교육상 4명, 학술연구상 6명)보다 대폭 확대하였다(교육상 및 학술연구상 각 10명).

교육상 수상자는 중어중문학과 이강재 교수(52), 경제학부 류근관 교수(55), 생명과학부 이일하 교수(52), 간호학과 Heeseung Choi 교수(45), 전기·정보공

학부 김태환 교수(53), 컴퓨터공학부 이상구 교수(54), 생물교육과 김재근 교수(52), 수의학과 이인형 교수(46), 국악과 임재원 교수(59), 경영학과 정운오 교수(62) 등 10명이며,

학술연구상 수상자는 철학과 이남인 교수(57), 경제학부 이지홍 교수(40), 사회학과 박명규 교수(60), 생명과학부 안광석 교수(54), 기계항공공학부 최해천 교수(54), 재료공학부 김기범 교수(60), 법학과 정인섭 교수(62), 화학교육과 정대홍 교수(46), 약학과 이미옥 교수(53), 의학과 노동영 교수(60) 등 10명이다. 시상식은 2016년 11월 23일(수) 오후 3시 교수학술개발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서울대학교는 교육 수준 향상에 기여하



고자 5년 이상 재직 교수 중 높은 수준의 강의와 창의적인 교육방법을 개발하거나, 학생 지도에 남다른 열성으로 동료 교수들과 학생들에게 귀감이 되는 교수를 선정하여 2005년부터 '서울대학교 교육상'을 매년 시상해 오고 있다.

또한 창의적이고 활발한 연구활동을 통해 탁월한 연구실적을 낸 교수들을 선정하여 교수들의 연구의욕을 고취하고 연구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2008년 '서울대학교 학술연구상'을 마련하여 시상해 오고 있다.

모교 교수들 일부 시국집회 참여



을 들고 거리로 나왔다. 서울대 교수들이 집단으로 집회에 참여한 것은 지난 1960년 4·19혁명 이후 처음이다.

교수들은 민주주의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최 교수는 "최순실 게이트 연루자들과 협력자들을 우리가 권력의 자리에서 추방해야 한다. 이번에 제대로 진상조사를 해 평화적이고 합법적으로 부역자들을 청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26일 오후 전국교수연구자비상시국회의 소속 교수들이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인근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발언자로 나선 김영 인하대 교수도 "이번 사태가 박근혜 대통령과 그 일당의 단순 퇴진으로 끝나서 보수세력 재집권

의 발판이 되지 않도록 감시해야 한다"며 "민주공화국을 건설하기 위해 반민주적 세태 청산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수들은 이화여대에서 벌어진 비선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입시, 학사비리 등을 교훈 삼아 각자 소속된 대학도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교수들은 상아탑만 대표하지 않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 참여했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서울대 공대 소속 김모(59) 교수는 "우리는 결국 국민이 한 사람으로서 역사 현장에서 국민 소명을 다하겠다는 생각으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집회에서 "범죄자 박근혜는 모든 권력을 주권자 국민에게 불환하고 이미 국민에게 탄핵된 총리와 내각, 청와대비서실, 집권 새누리당 모두 즉각 해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다른 시민들과 함께 오후 4시부터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며 정권 퇴진 구호를 외쳤다.

(한국언론 종합)

오수형(에릭 오) 동문, Hulu 애니메이션 만든다

한인 아티스트 오수형(미국명 에릭 오, 미대 02)동문이 홀루 디지털 애니메이션 시리즈 '댐 키퍼'(The Dam Keeper)의 감독을 맡아 화제다.

한국인이 유명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원작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연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댐 키퍼'는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톤코 하우스'(Tonko House)와 세계적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기업 '홀루'(Hulu) 재팬이 제작해 오는 2017년 여름 방영할 예정이다. 5분 길이 에피소드 10편으로 꾸며질 디지털 시리즈 '댐 키퍼'는 주인공 돼지가 친구 여우와의 우정을 통해 두려움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깊이 있고도 따뜻하게 그려낼 예정이다. 2015년 제87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단편 애니메이션 후보로 지명된 동명의 단편이 원작으로 에릭 오 감독은 지난해 원작의 애니메이션 수퍼바이저 자격으로 아카데미 시상식 레드카펫을 밟았다.

에릭 오 감독은 "지난 6년 반 동안의 픽사 활동을 마무리하고, 감독으로서 '댐 키퍼' 시리즈를 총 연출하게 돼 큰 영광"이



홀루 애니메이션 시리즈 '댐 키퍼'의 에릭 오 감독(가운데)과 총괄제작자인 다이스 츠츠미(왼쪽), 로버트 콘도가 함께 했다.

라며 "유쾌하고 재미있으면서도 서정적이고 시적인 작품으로 보는 이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동시에 선사하고 싶다"고 전했다.

오 감독은 이어 "애니메이션 수퍼바이저로 만들었던 단편 '댐 키퍼'의 세계관이 나 문법을 완전히 재해석해 새롭게 표현할 계획"이라며 "그간 해왔던 픽사의 장

를 찾아서' '몬스터 유니버시티' '브레이브' 등의 주요 캐릭터를 담당한 애니메이션으로 활약했다. 개인 작품활동도 활발히 해, '심포니' '하트' '사과먹는 법' 등의 단편이 안시, 히로시마, 자그레브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SIGGRAPH, 학생 아카데미 어워드, SICAF 등 다수의 국제 영화제와 시상식을 통해 호평을 받았고 한국에서는 2008년 단편 작품 '웨이 홈'으로 신동현 어워드 특별상과 SBS 애니메이션 대상을 수상했다.

오 감독은 '댐 키퍼'를 위해 지난 10월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를 떠나 톤코 하우스에 합류했다. 버클리에 위치한 톤코 하우스는 픽사의 아트 디렉터 출신인 두 일본계 미국인 다이스 츠츠미와 로버트 콘도가 지난 2014년 독립해 설립한 신생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로, 이미 뉴욕타임스, 버라이어티, 할리웃 리포터 등 유력 언론에 앞다퉈 소개되며 전 세계 영화계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한편, '댐 키퍼'는 홀루를 통해 1차 서비스 된 후, 전 세계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과 TV 등에서도 방영될 예정이다.

한국복식사학자 김민지 동문

‘한복이 지닌 문화적 가치의 활용’ 강연
프린스턴 한국문화연구회에서



그 사회가 가진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노력을 기울리 하지 않는다.

그러한 노력과 연관하여 한복을 한국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문화의 하나로 나는 미국 사회에 알릴 특강의 기회가 있었다. 엘에이의 게티미술관과 샌프란시스코 아시아미술관에서 일반인을 위한 교육행사를 한 적이 있으며, 2016년 11월에는 뉴욕의 패션스쿨 FIT와 뉴저지 러거스 대학 등에서 전공 학생과 한국미술 전문가를 위해, 뉴저지 한인센터와 프린스턴 한국문화연구회에서는 교민들을 위한 강의를 했다. 나라 밖에서 한복이 지닌 문화적 가치를 전달하는 과정을 통해 나는 세계 패션의 역사 속에 한복이 차지하는 위상과 한복이 지닌 독특한 특징을 보다 객관적으로 보게 되었다.

17세기 이후 현재까지 서구 패션의 역사를 훑다 보면 중국의 치파오, 일본의 기모노, 인도의 사리와 도티 등 동양의 민족복이 미친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 폴 푸아레, 코코 샤넬, 이브 생 로랑, 존 갈리아노, 칼 라거펠트, 랄프 로렌, 알렉산더 맥퀸 등 20세기 서구 패션의 최정단을 주도해 온 디자이너들이 동양적 미학을 담은 컬렉션을 발표하여 동양의 민족복을 소개함과 동시에 서구 사회에 동양 문화에 대한 환상을 유발해왔다.

1970년대 이후 요지 야마모토, 이세이 미야케와 같은 일본 디자이너가 동양복식의 전통에 기반을 둔 작품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고, 1990년대에 들어서서는 이영희, 진태옥, 이상봉 등 한국 디자이너도 한복과

한국적 미학에 뿌리를 둔 디자인으로 파리의 세계 패션 무대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일본에서는 '유카타(浴衣)'가 일상복으로 부활하여 젊은 층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한복도 '생활한복', '개량한복', '신한복'이라는 이름 하에 젊은이들 사이에 일상복으로 파고들고 있다.

서구화와 더불어 서양복이 우리의 일상복이 된 지 60과 1세기가 지나자 다시 민족복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아시아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면서 세계화된 패션을 다시 아시아화, 동양화(Re-Orientalize)하고 있어서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의 한 특징으로 패션이론가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신원복의 미인도. 간송미술관 소장

재 다양화한 패션은 대개 한 특정 문화의 요소에 집중하지 않고 여러 문화 요소가 복합적으로 얹혀 있다. 여기에 디자이너 자신의 독창성이 가미되면서 '새로움', '남과 다름'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의 다양한 동양 문화에 대한 조명은 21세기에 이르러 한복과 한국미술에까지 이르렀다. 캐롤리나 헤레라가 2011년 봄/여름 컬렉션에서 한복에서 영감을 얻은 컬렉션을 발표하였고, 샤넬의 수석디자이너 칼 라거펠트는 2015-2016년 크루즈 컬렉션을 한복과 한국미술에서 영감을 얻은 주제로 발표했다. 장 폴 고티에는 개인 순회전을 2016년 서울에서 가지면서 한복의 요소를 차용한 '한복드레스'를 디자인하여 함께 전시했다. 이제 한복은 한국 국민뿐 아니라 세계의 하이패션 디자이너들도 공유하는 문화적 원천 자료가 된 것이다. 이 세 디자이너의 작품에 활용된 한복의 미학을 분석하면서 한복이 국내뿐 아니라 세계의 복식문화에 기여할 수 있는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내 강의의 취지였다.

해의 디자이너가 한복을 주제로 작업할 때 얼마나 공부를 하고 할까? 그것이 자못 궁금하였다. 칼 라거펠트는 보그(Vogue) 지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것을 디자인하기 위해서 단지 조금만 공부했다(Nothing too deeply ... I only have to see a little to do a lot!)"고 했다. 이들이 한복의 미를 세계 패션 무대에서 바로 표현하고 조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도 한복이 지닌 문화적 가치를 잘 연마하고, 학문으로 정립하고, 세계에 올바르게 알리는 일이 필요하게 되었다. 방법론으로는 한복 전문가가 국제적 감각과 보편적 가치 기준에 입각하여 해야 한다.

모교인 서울대학에서 한복 전공 교수를 뽑지 않아2000년 이후 연구의 맥이 끊어진 것이 못내 아쉽다. 그에 따라 다른 국공립, 사립 대학에서도 한복 전공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 한식, 한복의 세계화를 외치지만 정작 기초가 되는 연구와 교육을 외면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김민지 한국복식사학자
서울대 의류학과 박사 (학부 87학번)

“은퇴는 없다. 앞으로 저소득 환자 돌볼 터”

야간진료센터서 인술 펼치는 83세 백전노장 오형원 박사

로스앤젤레스의 코리아타운에 야간진료센터가 있다. 5가와 6가 사이의 버질(505 S. Virgil Ave. #101)에 있는데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문을 열고 있다.

“뇌졸중이나 심장박동 정지 같은 생명이 위급한 상황은 가까운 곳의 종합병원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독감이나 설사, 복통, 고혈압, 당뇨, 편두통, 천식, 화상 그리고 찢어진 상처 수술 같은 응급 상황은 여기 야간진료센터에서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합니다.”

야간 진료센터에 대해 설명해 주신 분은 의료계의 백전노장으로 통하는 83세의 원로, 오형원 박사(의대 59졸, 사진)다.

1959년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오형원 박사는 외과전문의로 수도육군병원 외과 부장, 한미병원 외과 과장, 그리고 1965년에는 맹호부대를 따라 월남까지 갔다 온 참전용사다.

“전체적으로 한인 병원의 일반적인 현상입니다만 이곳에도 환자들의 대부분이 노인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노인이라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우선 말이 통하고 그리고 감정이 통합니다. 노인들의 사정은 노인들이 더 잘 안다는 말이 되겠죠.”

오형원 박사는 서울에서 외과의사로 활동하다 1973년에 미국에 와서 내과로 바뀌 오랫동안 개인병원을 운영



해 왔었다. 따라서 외과와 내과환자 등 전공에 부담 없이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

“한인 환자들의 대부분이 한두 군데만 아프다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 저기 아픈 곳이 많아요. 그런 경우 전공 과목이 외과와 내과, 두 개가 돼 물론 환자들도 그렇습니다만 나도 스스로임이 없고 부담이 없어 좋습니다.”

오형원 박사는 매주 수요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야간 진료센터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

“종합병원의 응급실은 비용이 엄청납니다. 그러나 여기는 다릅니다. 일반 보험과 메디케어 메디칼 환자들이 자유롭게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절차가 간단하고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물론 한국에 서비

스가 이뤄지고 있지요. 그리고 최첨단의 의료 장비가 갖춰져 있습니다.”

오형원 박사는 의료 활동은 물론 단체 활동도 폭넓게 해 왔다. Asian-Pacific Island Health Forum의 창립 이사, 서울대학교 남가주 총동창회장, 남가주 의사회장, 재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총동창회장 등을 역임해 왔다. 오형원 박사는 또 보험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무료 분만과 산전, 산후조리 및 가족계획 등을 무료로 실시, 지역 주민들의 보건관리에 이바지한 공로로 지난 2003년에는 미국 의회가 수여한 ‘올해의 의사상’을 받았으며 2013년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수여한 의료 봉사상을 받기도 했다.

“야간 진료센터라고 하니까 밤에 발생한 응급환자들만을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는 주간에 비즈니스나 직장 때문에 병원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도 저녁시간을 이용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형원 박사는 붓글씨를 쓰는 한인사회의 서예가로도 유명하다. 현재 미주 한인언어협회의 회장으로서 정기적으로 회원들의 전시회를 주관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나무에 써둔 글을 조각하는 서각협회의 고문이기도 하다.

“일찍 은퇴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경우는 2008년에 개인병원을 그만 두었고 그 이후부터는 건강정보센터 등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기관에서 일해 왔습니다. 앞으로 기회와 여건이 마련되면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의료봉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대구 출생의 오형원 박사는 부인 오인숙 여사(76세)와의 사이에 둘 다 변호사인 두 딸 주연, 미연 그리고 그들이 난 3명의 손자와 2명의 손녀를 둔 다복한 가정의 할아버지이기도 하다. 인터뷰: 라철삼 (문리대 64)



홍건 동문, 에티오피아 의료봉사



1997년 남미 뼈루의 아마존 원주민들을 위해 의료 봉사를 떠나는 미국 의료팀의 의사가 한사람 더 필요한데 청진기를 사용하고 일반의 사처럼 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면 데리고 가겠다는 제의를 받고 기뻐하며 같이 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첫번째 의료선교 여행이 저의 삶을 180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계속 길을 열어 주시고 미국 선교기관을 통하여 여러 나라를 방문하게 되었으며 또한 시카고에서 4년마다 열리는 한인선교대회에 참석해 전세계에 흩어져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진료해주며 많은 선교사님들을 알게 되고 그분들의 초청에 응하여 개인적으로 그리고 제가 속한 교회 차원에서 다른 교인들과 함께 그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무슬렘 나라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은 미국에서 의사가 와서 진료를 해주길 원해서 그분들을 찾아가 진료를 해주면, 그들에게 돌을 던지던 주민들이 저희들이 떠난 후에 반갑게 인사도 하고 친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복음의 씨앗은 심어 놓으면 언제인가는 싹이 나고 열매도 맺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몽골과 중국등 제3국 의과대학을 방문하여 강의를 하고 의대생과 레지던트를 교육시키는 일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봉사 활동은 계속 문이 열려 러시아, 중국, 북한등 공산국에 가서 봉사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나진 선봉 지역에 미국에서 사는 한인 기독교인들이 세운 나진병원을 두번 방문하여 환자들을 진료하고 북한의사들에게 CT 스캔등을 가르칠 기회를 가진 것은 우연이 아닌 것으로 압니다. (7면에 계속)

오랫만에 미주동문님들께 인사의 말씀과 더불어 그동안의 삶을 돌아 보며 몇자 적습니다.

저는 원래 미술대학에 가기를 원했으나 부모님의 완강한 반대로 1964년에 서울 의대에 진학했습니다. 졸업하고 곧장 해군 군의관으로 3년 복무를 마치고 도미해 시카고에서 진단 방사선과 레지던트 과정과 해의학 헬로우로 전문의가 된 후 시카고 근교의 Little Company of Mary Hospital 이라는 작은 병원에서 34년을 조용히 근무하였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따라서 친척이 운영하는 절에 가서 부처앞에 절을 하면서 건강과 공부를 잘하게 되어 대학을 진학하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러나 오래 연을 한 후에 결혼을 하게된 아내 때문에 마지 못해 교회엘 나가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설교와 함께 시작되던 출음이 가시고 귀가 열리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삶을 주님께 바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일을 하면서 좀더 의미있는 봉사를 하기 위해 시카고의 가난한 흑인들이 사는 동네에 위치한 Lawn-dale Christian Health Clinic에서 토요일 무료자원봉사로 x-ray 사진들을 판독해 주는 일을 15년 동안 했고, 이어서 Southside Pregnancy Center 라는 곳에서 초음

필라델피아 가정상담소

1. 상담소의 연혁과 설립 목적

필라여성회 가정상담소는 1986년 4월 26일 한국 가정 법률 상담소 소장이며 한국의 첫 여변호사이셨던 이태영 박사님(법대 46)의 권고로 10번째 북미주 지부로 창립식을 가졌습니다. 그 당시 이민 온 많은 교포들 중 그들이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가정문제, 언어문제, 자녀문제, 법적인 문제 등등이 있음을 깨닫고, 교포들이 자원 봉사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도와 주기 위하여 상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2. 상담소의 구성과 운영은? 참여하는 서울대 동문들은?

상담소는 도움이 필요하여 전화주신 분들에게 무료로 상담을 하고 필요에 따라 면담, 통역 또는 해당 기관에 연결을 도와 드립니다. 전화는 필요에 따라 임원들이 돌아가면서 받습니다. 회원들의 부군 중에 상당수가 서울대 동문들입니다. 필라여성회의 모임에 참석한 동문들이 풍부한 강사진이 되었고 재정적인 보조도 하였습니다. 또한 많은 동문들이 필라여성지에 기고하였습니다.

3. 501-C3로 정부나 공공기관의 재정도움을 받고 있는가?

비영리 기관으로 기부금은 501-C3로 세금면제를 받지만 현재까지 회비와 기부금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4. 심영미 회장님과 한혜원 이사장님 소개와 상담을 시작하게 된 동기

심영미는 대학원에서 상담전공을 하였으므로 상담소에 관심을 갖고 창립한 1986년 가을에 참여하였습니다.

1985년 겨울 한혜원이 필라지부를 설립하고자 4번째 필라에 방문하신 이태영박사님을 처음 뵈었습니다. 조카며느리 되시는 이송강씨를 동반하고 오신 박사님의 그당시 이민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여성들을 위한 진심의 호소와 권고의 말씀은 참으로 감명 깊었습니다. 곧 그분의 뜻을 받드는 분들이 Legal Aid자격을 가지셨던 분의 도움으로 규합이 되면서 1986년 4월 26일 창립식때는 한혜원(의대55), 윤경숙(문리대 59)을 포함한 18명으로 시작되었고 일주전 창립식때는 83명으로 되었습니다.

과거의 회장으로 수고하신 한혜원, 이봉순, 송미카엘라, 윤정나, 현회장 심영미 그리고 부군들로 보조해주신 한수웅, 박상호, 송영두, Carl Doughty, 심완설, 그리고 현재 30년간 한결같은 정성으로 봉사하신 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태영(가운데) 박사과 함께

5. 상담소 프로그램 소개

자원봉사 형식으로 참여한 분들이 돌아가며 전화 상담을 하였고 때문에 자원봉사자가 상담하는데 필요한 양식을 넘기고자 여러 분야의 강좌를 회원들끼리 또는 열린 강좌로 다양한 제목의 강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의 내용들을 모아 ‘필라여성’지로 출판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하도록 합니다. 여성지가 널리 보급되면서 원고도 들어오고 보내신 기부금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6. 그동안의 성과와 1년 평균 몇케이스의 상담?

평균 170건 가량. 평균의 의미 보다는 사방에서 늘어나는 상담시설과 인터넷의 도움으로 상담은 처음보다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이민사회도 많이 정착했으므로 상담의 내용도 변화되어 가고 있다고 봅니다.

7. 그동안 기억에 남는 케이스

초창기 가정폭력과 함께 시부모와의 분쟁은 그 시대 한국사람들이 겪는 독특한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시대의 변천에 따라 현재는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8. 가장 힘들었던 케이스

15년 전부터 계속 전화하시며 같은 이야기를 길게 되풀이 하시던 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아주 힘이 들었는데 언제부터인가 필요한 말을 하고 끊을 때 끊을 줄 아는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9. 스스로 평가할 때, 상담소에게 몇점을 주겠는가?

...

10. 앞으로의 계획

인터넷의 발달로 많은 정보가 제공되므로 강좌보다는 토론 중심의 모임을 추진하려 합니다.

11. 서울대 미주동창회와 동문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 기타 하고 싶은 말

창립 30주년 기념을 하고나니 현 임원들은 이제 뒤로 서서 후원할 것이고 젊은 동문들이 회원에 참여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혹시 지나간 ‘필라여성’ 책자가 궁금하신 분은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특정한 글을 원하신다면 사본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사회에 조금이라도 돕고자 하시는 동문들께서 필라여성회에 참여하셔서 동포사회에 도움주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글: 한혜원 (의대 55)



에티오피아 의료봉사

(6면에서 계속)

그래서 그동안 모두 20여개국을 방문하고 봉사를 해 왔습니다. 자녀들도 대학을 마쳤으니 더 나이가 들기 전에 미국의 편안한 삶을 정리하고 어딘가 정착을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곳에서 장기적으로 봉사를 할 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3년전인 2013년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한대로 바쁜 개업의로서의 삶에서 은퇴하고 전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 에티오피아(6.25 참전국) 수도 아디스아바바에 위치한 명성병원 (Myungsung Christian Medical Center)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한때 공산화 17년을 겪으면서 극도로 가난하게 되고 의료혜택을 받지 못해, 에티오피아 정부의 요청으로 한국의 명성교회에

서 12년전에 세운 병원으로 여러 최신 의료 장비가 설치되어 특히 방사선과에 CT, MRI, Angio 등이 갖추어 있고 명실 공히 에티오피아에서 최고의 메디칼 센터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정부의 요청에 의해 병원안에 4년전에 의과대학이 문을 열고 (Myungsung Medical College) 현재 99명의 기존의 재학생들과 9월에 새로 입학한 40명의 신입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방사선과에서도 이미 두번째로 의대생 임상실습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1, 2학년 학생들의 해부학등 강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피아(6.25 참전국) 수도 아디스아바바에 위치한 명성병원 (Myungsung Christian Medical Center)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한때 공산화 17년을 겪으면서 극도로 가난하게 되고 의료혜택을 받지 못해, 에티오피아 정부의 요청으로 한국의 명성교회에

지금의 상황으로는 건강과 여러 여건이 허락하는대로 오랫동안 에티오피아에 머물면서 지금 하는 일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어쩌다가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있겠느냐고 물어 보면 우스개 소리모로 세가 광야에서 40년을 살고 노년에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것과 같이, 나도 시카고에서 40년을 살았으니 이제 에티오피아에서 40년을 살기를 원하므로 37년을 더 있겠노라고 하면 모두 웃으며 좋아합니다.

또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케냐를 비롯하여 인근 아프리카 국가들도 방문하여 여러면으로 도움을 주는 일을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년에 한번씩 휴가로 시카고를 들리게 되면 오래 만나지 못한 자식들과 손주 손녀들과의 시간을 보내면서 아쉬워하지만 할아버지가 멀리 떨어져서 불쌍한 어린이들을 도와 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는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고 오히려 저를 격려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그려왔고 특하나 고등학교와 의과대학을 다닐 때부터 취미로 미술부 활동을 해 왔고 에티오피아에 가서도 틈틈이 스케치와 유화 작품을 그려 왔는데, 금년 여름에 마침 기회가 생겨 명성교회 친교실에서, 그리고 인사동 갤러리 FM에서 개인전도 열었고, 여러 차례 고등학교 미술전 (서미모)에도 참여해 왔습니다. Kuhn_hong@yahoo.com 감사합니다.

글쓴이: 홍건 (의대 64)



조지아 Georgia



Downtown Historic District



Coca Cola



Margaret Mitchell House and Muse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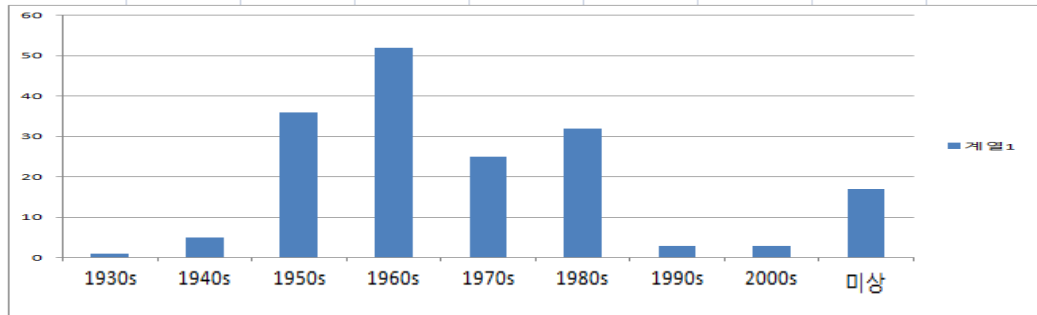
1. 동창회 설립, 연혁과 카버하는 지역은?

조지아 동창회는 1989년 설립(회장:김용건 동문, 문리대)됐고 강창석(의대 73) 현 19대 회장까지 모두 18명이 회장직을 맡았습니다. (초대회장이 2대 겸임) 조지아주에 거주하는 동문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애틀랜타가 동남부지역의 허브역할을 하고 있는 터라 앨라배마와 캐롤라이나, 테네시 등지에서 우리 모임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2. 동창회 멤버는 몇명이고 보통 모이는 숫자는? 연령분포? 확보된 이메일 주소 갯수?

동창회 명단에 올라있는 동문은 2016년 9월1일 현재 총 174명이지만, 확보된 이메일주소는 112개입니다. 봄과 가을에 있는 야유회에는 적게는 50명에서 많게는 70명 정도가 모입니다. 정기총회에는 대략 60여명, 송년회에는 대략 80여명 정도가 모입니다. 출석률이 꽤 높은 편이죠.

1930s	1940s	1950s	1960s	1970s	1980s	1990s	2000s	미상
1	5	36	52	25	32	3	3	17



동창회원들은 대체로 50~70년대 학번 동문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80년대 학번 동문들이 그 중심축을 이어받으면서 3~40대 젊은 동문들의 참여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3. 동창회의 그동안의 활동 상황

우리 동창회는 매년 봄과 가을에 야유회를 갖습니다. 식사를 나누고, 게임과 체조, 트레킹 등을 함께 하고 야유회에 앞서 친선골프경기를 갖기도 합니다.

정기총회는 설날을 전후해 개최하고 있고, 송년회는 매년 12월 첫째 일요일에 열리는데, 이 모임에서는 자랑스런 동문들을 강사로 초청해 세미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신약개발에 앞장서 큰 업적을 남긴 주중광 동문(약대 60), 미국내 경제학회에서 주목받고 있는 김형우 동문(경제 87), 여행을 통해 삶의 지혜를 일깨워준 이영진 동문(공대 76) 등이 최근 강연했습니다.

지난 2007년에는 모교 음대생들이 순회공연을 했는데, 이 때 공연수익으로 기금이 만들어져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2015년 11월에는 박민 동문(음대 관현악 80)이 지휘하는 피스앤하모니 오케스트라의 '가을 열린음악회'를 특별후원했는데, 이날 음악회에서는 차세대 첼리스트를 꿈꾸고 있는 최강균과 협연하고 독일산 첼로를 증정해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어주었습니다.

또한 2016년 3월5일에는 조지아주에서는 처음으로 '삼일절음악회'를 홍성구 동문(음대 작곡

87)이 지휘하는 서브라임 챔버 오케스트라의 주최로 열려 흥 동문 자신이 작곡한 가곡 3편을 포함해 20여곡을 연주해 지역사회의 극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4. 동문들의 삶의 모습들 (연령 분포, 직업, 취미, 사회 봉사, 교육 등)

남북전쟁 당시 남부연맹의 수도였던 애틀랜타 지역은 아이러니하게도 마틴 루터 킹 목사로 대표되는 인권운동의 산지이기도 한 유서깊은 지역으로, 다양한 직업을 가진 동문들이 지역사회에 공헌, 활약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수로 활동하는 동문들이 Emory(에모리), GATECH(조지아공대), GSU(조지아주립대), UGA(조지아대학교) 등을 비롯한 여러 교정에서 활약하고 있고, 신약 개발과 연구를 통해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동문이 두 명이나 있기도 합니다. 또 각종 장학재단과 단체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동문들도 많습니다.



Brasstown Bald Georgia Sunset



CNN and tbs



Pulaski Candlelight Firing Savannah Tybee



Martin Luther King, Jr. National Historic Site



Stone Mountain



Centennial Olympic Park

미 동남부와 남미지역으로의 물류 허브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애틀랜타의 지리적 특성으로 각종 상업활동에 종사하는 동문들도 다수입니다. 특히 애틀랜타 지역에서 자생한 한인은행들은 모든 행정들이 우리 동문들로 이루어져 있을 정도로 동문들은 경제적으로도 지역사회에 중심축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5. 동창회가 설립후 이제까지 해온 일 중에서 자랑스러운 일은? 타 지부에도 권하고 싶은 것은?

지난해 11월 개최한 '열린음악회'는 지역사회에서 음악가로의 꿈을 키우고 있는 차세대 연주자를 발굴해 오케스트라 협연의 기회를 주고 악기까지 수여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행사였습니다. 또한 훌륭한 연주를 통해 지역사회의 이민자들에게 바쁜 일상에서 한 번의 쉼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문화를 통한 지역사회 공헌에 동창회가 함께 할 수 있었다는 데 자부심을 느낍니다.

6. 미주동문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지역의 관광명소, 문화/정신적 가치, 교육 역사 등. 이 중에서 특히 지역을 상징하는 단 한가지를 든다면 무엇을 내놓으시겠습니까? 이유는?

애틀랜타를 상징하는 아이콘들은 대체로 CNN, 코카콜라, UPS 같은 비교적 동시대 기업들입니다만, 인권운동가로 유일하게 자신의 생일을 국경일로 지정받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 재임시절보다 퇴임후 더 많은 영향력을 보여준 지미 카터 대통령과 같은 평화주의자들 역시 여행자들의 발길을 끄는 관광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꼭 챙겨야할 관광지라면 역시 '스톤마운틴'이라고 하겠는데요, 단 한 개의 돌덩이가 해발514미터(지상 251미터) 높이에 둘레만 5마일(8km)을 넘기는 거대한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남부의 영산'인 셈이죠. 흑인노예가 있던 시절에는 처절한 인종차별의 현상이기도 했지만 지금은 밤마다 펼쳐지는 레이저쇼를 비롯해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특히 호숫가에서 배를 타고 바라보는 스톤마운틴의 울긋불긋 가을철 단풍 절경은 최고라 하겠습니

7. 동창회 운영에 어려운 점? 미주총동창회 본부가 무엇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역시 회비와 후원금을 받는 일이 가장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미주동창회도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회비와 후원금을 걷기위해서는 동창회 활성화가 우선되어야 하고 의미있는 동창회 활동이 먼저 선



행되어야 합니다. 미주동창회가 모교와 함께 미주 지역 순회 음악회, 예술 전람회, 공연 그리고 자랑스러운 동문들의 지부 방문 및 강연회등을 지원해 주는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8. 이번 평의원의회에서 회칙에 따른 '장학위원회'와 '나눔위원회'를 설치하고 활성화하자는 결의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지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장학위원회와 나눔위원회는 동창회가 추구하는 존재 이유를 실현하고자하는 미주동창회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대단히 고무적인 결정이며, 향후 미주동창회와 지부가 함께 추구해야 할 동창회의 활동에 중요한 길잡이가 되리라 기대합니다. 동창회 존재 목적이 모교 후원, 교육, 자선 활동 및 지역사회 기여인데 동문들과의 단순한 친목단체로 머물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조지아 지부에서는 작년부터 동문들이 주도한 음악회들을 통해 차세대 음악인 육성및 지원 그리고 삼일절등 의미있는 절기에 격조 높은 음악회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해 왔습니다. 또한 한인회 주최 축제행사 에 박민(음대 80)동문이 열린 음악회를 열어 지역사회와 소통하였고, 홍성구 동문(음대 86)은 한국 영화제와 음악회를 통해 지역사회에 한국을 알리는 일에서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9. 기타, 하고싶은 말 (미주동창회 본부 또는 동창회보 등에)

미주동창회에서 동창회보를 통해서 미주동창회와 지역동창회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열심히 해주셔서 이 지면을 통해 감사드립니다. 미주동창회에서 동창회보를 이메일을 통해 보내는 방법을 준비하고 계신 것도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동창회보가 지

역사회에서 활동하는 동창들을 서로 연결시켜서 더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사회공헌을 이끌어내주길 기대합니다. 또한 페이스북 페이지 개설과 같이 SNS기반을 활용해 더 많은 동문들이 동창회보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더 빠르게 동문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역사의 기록'이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미래를 준비하고 돕는' 소식지로 기능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미주동창회 평의원을 통해 전 미주동창회를 활성화하고 동창회지부 방문등을 통해 소통의 기회를 열어준 손재욱 회장님과 임원진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글: 홍성구(음대 87) 총무

임원명단과 연락처:



회장 강창석(의대73)
kangs@gmail.com

차기회장
이상엽(공대85) / duluthcpas2@gmail.com

총무
홍성구(음대 87) / hurtfree@gmail.com

재무
이일순(경영대 82) / islee321@hotmail.com

사진설명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 홍성구 동문이 지휘한 '2016 삼일절음악회'에서 테너 김성록 동문이 열창하고 있다.

- 주중광 동문이 자신의 연구분야에 대해 2016년 정기총회에서 강연하고 있다.

- 박민 동문이 지휘한 '2015 가을 열린음악회'에서 출연진이 무대인사를 하고 있다.

- 박민 동문이 지휘한 '2015 가을 열린음악회'를 감상하고 있는 관중들.

- 2015년 5월 봄 야유회에서 박민 동문이 게임을 설명하고 있다.

[음악]



Autoharp 연주회

‘Autoharp와 함께 하는 감사 Dinner Concert’가 11월 19일 토요일에 김병연(공대 68) 남가주 총동창회장이 운영하는 ‘작가의 집’에서 열렸다.

Autoharp 최용순 선생님 제자 55분이 각 교회나 단체 모임 12지역에서 그동안 배운 실력을 한자리에 모여 선보이며 친목을 다졌다.

그 가운데 한 단체가 서울대 동문님들의 wife 4분(Mrs. 조희영 (치대 57) 부군 조한원 (의대 57), Mrs. 김정자 (간호대 61), Mrs. 라진숙 (라철삼 문리대 64), Mrs. 김문희 (김병연 공대 68)), 양셀리의 연주가 주목된다. 이들은 1주일에 2번 정도 모여 연습하며, 일상에서 이 시간만큼은 나만의 쉼터가 된다.

Autoharp는 좀 생소한 느낌이 들지만 그마한 악기를 가슴에 안고 연주하는 모습은 매우 여성적이다. 이 악기는 필라델피아에 살던 독일인 이민자 Charles F.

Zimmermann 이 만들어 1882년 US 특허 #257808 를 획득하고 이 후 1883-84년에 독일인 Karl August Gütter 가 영국에서 획득한 특허품 Volkszither와 합성해 1885년부터 생산하기 시작했다. 편리한 기보법(Tablature)과 26개의 줄(String)과 5개의 코드(Chord Bar)로 Chroma Harp 를 창안 탄생시키고, 결국 그것은 오토하프로 발전되며 코드가 3.5,6,12,15,27개로 변화되었으며, 오토하프에서 일명 코드지터(Chord-Zither)라고도 불린다.

음색은 조용하며 곱고 아름다운 멜로디에 화음으로 반주되는 악기이며, 롬바, 고고, 트롯트, 비건, 스윙 등 무척 다양한 리듬으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이 날 연주곡목들은 1.예수 인류의 기쁨 (정경혜, 조이안, 신경희, 이귀환, 조상신, 데보라 김, 김주연, 정옥희, 수잔나김, 푸시조, 최영주, 최준섭, 정복희, 김충만) 2.한 사람 (고영옥, 장영숙, 김필리스, 조옥자), 3.사랑의 열매 (정병란, 이영희, 이낸시, 장



정우, 최옥희, 최순복, 강해숙), 4.토요일 밤에 (고근희, 정순옥, 유경희, 김연혜, 홍보경), 5.선구자/만남 (김문희, 강정자, 조희영, 양셀리, 라진숙), 6. Autumn Leaves (이일주), 7. Wave of the Danube (정경혜, 정복희, 데보라 김, 루시조), 8.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람 (전종하, 황영옥, 이일주, 씨니김), 9.시월의 어느 멋진날에 (고영옥, 고근희, Susan Park, 김경숙), 11.주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전병란, 김미라) 12. Autumn Leaves/ 아 가을인가 (방해자, 문찬림), 12. The Sound of Silence (손동진, 최준섭, 최

윤순) 3분의 남자분들의 The Sound of Silence Trio 연주는 매력적이며 여자분들만 하는 연주자들 가운데 이색적이었다. 13. Somewhere My Love 는 최용순 선생님의 마지막 연주로 멋진 빠른 손놀림의 연주는 청중의 마음을 감미롭게 했다.

다소곳이 자그마한 악기를 안고 있는 연주자들의 모습이 주부들이 아닌 예술가로서의 자태가 아름다웠던 연주회였다.

글: 백옥자 (음대 71) 조직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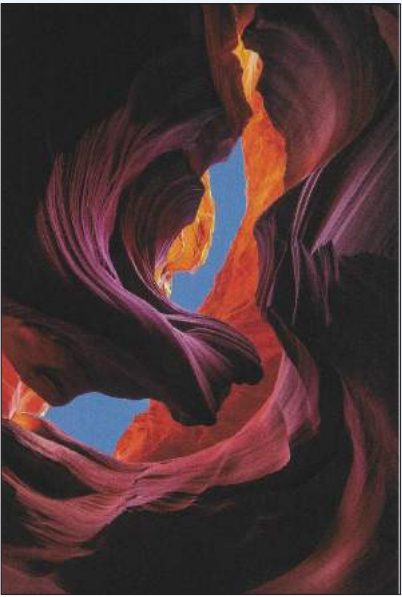
노현숙 사진전

노현숙 (Suzy Ro, 부군 노명호(공대 61) 전 남가주총동창회장) 사진작가의 작품 31점이 전시된 전시회 오프닝 리셉션이 11월 12일 토요일 김병연(공대 68) 현 남가주총동창회장이 운영하는 ‘작가의 집’에서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자리에서 노 작가는 다음과 같은 인사말을 전했다.

“사진을 시작한지 6년이 되었습니다. 반백의 철심 나이에 전시회를 한다는 것이 주제 넘어 보여 망설였지만 주위에서 여러 분들이 권하고 용기 주셔서 부족하지만 용기를 내어 개인전을 했습니다.

짧은 일출의 아름다움을, 일몰의 황홀함을,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의 은하수를, 사진으로 통해 서 완성시킨 예술의 작품을 여기 오신 친구, 가족, 동료 분들에게 보여 주고 싶은 마음에서 오늘 전시회를 가졌습니다.

쓸만한 장소를 찾는 것은 보물찾기 하는 것과 같으며, 작품을 만들기까지 비포장도로에서 타이어의 문제로 고생했을 때나, 앞이 보이지 않는 모래 바람과 예측할 수 없는 날씨로 고생하며, 한장 한장의 사진을 쓰다듬고 호호 불어가며 예술성 있는 작품으로 완성하기까지 스스로를 위로하고, 나의 꿈이 다른 사람에게 꿈이 된다면 나에겐 커다란 보람이 됩니다. 자기의 주관 점과 보는 분들이 주관점이 어우러져 나눌이 될 때 보람을 느끼며, 서울대 동문회에서 열성적으로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성황리에 오프닝을 마쳤습니다.



동문이 이렇게 따뜻하고 좋은 것을 새삼 느끼며 서울대 동문의 일부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181일의 외출을 용납해 주며 비판과 재정적으로 밀어 준 남편, 동행해준 친구분들께 감사하며, 앞으로의 저의 사진 여정이 어찌 될지는 모르지만, 지켜 봐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특히, 작품 “Thousand Lilies/S.F.”는 꽃과 황혼의 어우러짐이 자연에서 어떻게 저런 각도로 구사 했을까 하는 감탄과 작

품 ‘Lady in the Winds/Antelope Canyon Arizona’는 바람 부는 여인의 옷자락과 울동을 느낄 수 있었으며, 또한 보이는 이마다 각각의 상상으로 느낄수 있는 세계로 유혹한다.

글: 백옥자 (음대 71) 조직국장

필라델피아

: 김금자 동문 전시회

필라델피아와 뉴저지에서 활동하는 전문 한국화가들의 모임인 Philadelphia Arts Connection (PAO)의 제 9회 그룹전시회 리셉션이 11월 30일 볼루넬(PA)에 위치한 Montgomery County Community College Art Center Gallery 에서 열렸다.

PAC 회장으로 활동 중인 김금자(간호대 63,

작품명: Travel(왼쪽), Croatia(오른쪽)



워싱턴 DC

: 관악 세대

시월의 마지막 토요일 (10/29)에 매릴랜드 Sandy Spring에 거주하는 남옥현 (경영 84학번) 동문이 아름다운 집을 열어 관악세대 아크로폴리스 모임을 가졌다.

지난 9월말 이후 한달여 만에 만난 모임에는 80학번에서 96학번까지 17명의 선배들이 가족들과

함께 모여 한식, 일식, 양식, 디저트 등의 다양하고 풍성한 음식과 즐거운 담소가 함께 어울어진 맛있는 시간을 보냈다.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다양한 주제들 - 한국과 미국의 정치판, 야구와 풋볼 등 스포츠, 취미 생활, 자녀의 결혼문제, 자녀양육과 육아 문제 등 - 을 나누며, 깊어가는 가을 밤 한국을 떠나 미국에서 살고 있는 이제는 중년의 고개를 넘어가는 관악 세대의 관심과 고민들을 반추하며 삶을 함께 나누는 모임이었다. 글: 한정민(농대87) 편집위원



: 한글 글짓기 대회

11월12일 버지니아 소재 열린문 교회에서 12시부터 5시반까지 개최한글학교 워싱턴 협의회(NAKS-GW)가 주최하는 제 15회 한글글짓기 대회에 워싱턴 동창회(회장 안선미(농대 65))가 백일장 장원 한명(\$200)과 준장원 두명(\$150x2)에게 함께 \$500 상금을 기증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워싱턴 지역 21개 한글학교에서 249명의 학생들이 참가해 편지 쓰기 1,2, 글짓기 1,2 그리고 백일장으로 나뉘어 기량을 뽐냈다. 이날의 심사위원25명 중에는 워싱턴 지역 문인회 회원들과 서울대 동문으로는 황보한(공

56), 오인환(문63), 송윤정(인문대89) 동문도 수고하였다.

이날 참석한 오인환 미주동창회장은 안선미 회장을 대신해 백일장 분야에 응모한 학생 전원에게 장려패를 주고 장원 정지인 학생 (워싱턴 통합한인학교,MD) 과 준장원 임성운 (성안드레아),오선화(열린문) 학생들에게 트로피와 상금을 수여했다. 이 행사는 워싱턴 DC 동창회가 매년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거나 상금을 기증하는 전통으로 협력하며 이어가고 있는 연례행사 중 하나다,

관련 황보한 동문은 심사위원을 하면서 틈틈이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만들어 youtube(https://www.youtube.com/watch?v=xVbic6F_m7E&feature=em-upload_owner)에 올려 한글학교 글짓기

: 이태후 목사 방문 및 선물증정

미주동창회 손재옥 회장, 황선희 사회봉사담당 부회장(나눔위원회 임시위원장), 서경희 사무장, 김아라 편집위원, 김정현 편집위원장이 12월 2일 금요일 필라델피아 저소득 아이들을 방과후에 돌보는 길거리 사역을 2003년부터 13년째 계속하고 있는 이태후(사진 가운데, 인문대 83) 목사의 사역지를 방문 격려하고 선물(볼루투스 스피커 40개)과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 사역은 작년 본보 12월호에 소개된 후, 한국의 [중앙일보]에도 소개되기도 했다. 지역 커뮤니티센터와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이 진행될 낡은 건물 (사진 배경 건물)을 구입했으나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남가주

: 법대 정기 오찬 모임



서울대 법대 남가주 동문회(회장 채규환)는 지난 8일 LA 한인타운 JJ 그랜드 호텔에서 정기 오찬모임을 갖고 연말 행사 계획과 신년 활동 계획 등을 논의하고 앞으로 회원간의 화합 강화와 활발한 활동을 다짐했다.

필라델피아



: 골프대회

11월 8일 단풍이 곱게 물든 가을, 화창한 날씨 속에 총 12분이 Jeffersonville 골프장에 모여서 즐거운 outing을 하였습니다.

해가 일찍 저물어 18홀까지 다 못돌아 아쉬웠지만 끝까지 모두가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경기결과와 다음과 같습니다. Longest: 한수웅 Closest: 제갈은



대회는 물론 서울대 동창회 홍보에 기여했다.

이날의 상금 \$500은 지난 6월 25일 열린 미주서울대 연례동창회에 서울에서부터 참가한 이흥규 동문(의대62, 서울의

대 명예교수, 을지대 석좌교수)이 지난 6월 2일 KUSCO (한미과학 협력센터)에서 <한국의 기원> 강연회를 하며 워싱턴 동창회에 기증한 관려저서 40권을 판매해 이번 대회 상금으로 기증했다. 글: 오인환(문리 63) 직전 회장

조지아

조지아 지부 강창석(의대 73) 회장이 12월 4일 오후 6시에 KTN ballroom에서 정기총회와 송년회를 가지고 아래의 소식을 전해왔다: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겨울비가 내리는 곳은 날씨 가운데에도 70여명의 동문들이 모여서 즐거운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수왕 경연에는 '59 의대 김수일' 동문과 '60의대 정양수' 동문등이 입상하고 받은 상금을 동문회에 다시 기부하는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내년

스 퀴즈대회를 열어서 여러 동문들의 센스를 알아보는 즐거운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막내 새내기로 '92 사대 이연경, '96 사화대 김승범 동문이 새 회원으로 참가하였습니다. 2017-2018 새회장으로는 '66 문리대 허지영 ('60 약대 주종광 동문 부인)동문이 만장일치로 추대되었습니다. 나머지 임원진은 추후로 임명되어서 내년 2월 정기 총회시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모든 동문을 대신해서 먼저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기대를 해봅니다.

내년도에는 미주동창회와 보조를 맞추어 나눔의 활동이 좀 더 활발해지고 동문들의 전공을 살려 교육에도

힘써 보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성원과 사랑에 힘입어 지난 2년간 서울대 조지아지부 동창회 회장으로 여러분들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부회장 이상엽(85 공대),총무 홍성구(87 음대), 재무 이일순(82 경영대)부부 임원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와주신 김종구, 김만복, 이영진, 박민 전임 회장단부부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Merry Christmas and Happy New Year!!!!
서울대 조지아지부 동창회장 강창석 올림



시카고

시카고서울대동창회(회장 정승규(공대60))가 지난 27일 저녁 옥북룩 테라스 소재 드루리 레인벡에서 총회를 겸한 송년모임을 가졌다.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 1부인 총회에서는 ▲사업·재무 보고 ▲차차기(37대) 회장 선임 ▲장학생 시상 ▲환경진 차기회장(36대) 인사말 ▲임원진 소개 등이 진행됐으며 2부에서는 음악회 등 여흥시간이 마련돼 참석자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2018년 1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차차기 회장(제37대 회장)으로는 홍혜례(사범대 72) 동문이 선임됐다.

1982년에 설립된 서울대동창회는 1985년부터 매년 시카고 및 인접지역(IL, WI, IN, MI, IA)에 거주하는 고교 졸업반 학생, 대학 또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해 왔다. 장학생선발위원회(위원장 정승규 회장)는 올해 장학생 9명(곽은지, 권혜준, 김수진, 김해인, 박지선, 박진주, 이수현, 이슬, 정윤정)에게 이날 장학금 각 1천달러를 전달했다.

미네소타

제 23회 미네소타 서울대 동창회 연말총회가 지난 11월 5일 (토)에 University of Minnesota Coffman Union에서 열렸습니다. 40여명의 동문 및 가족들은 저녁식사를 나눈 뒤 조해석(공대 84) 2015-2016 회장님의 개회 선언과 교가 제창으로 총회를 시작하였습니다.

회원 본인과 가족 소개, 회원 동정 소개, 2016년도 행사 경과와 회계 결산 보고를 마치고, 2017-2018년을 이끌고 가실 황효숙(사대 65) 회장님, 송세진 (치대 78) 차기회장님, 이주일 (제어계측 88) 감사님, 그리고 이희윤(농가정 84) 총무이사님들을 선출하였습니다. 또한 장학위원회 설치에 관한 Bylaws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설연지(영문 04), 유상욱(화학교육 06, 교육학 석사 12), 홍성희(물리교육 04, 아

동가족 석사 09) 동문들께 장학금을 수여하였습니다.

짧은 휴식 후에 송창원(문리 53) 동문께서 “해방 전후의 한국 교육 그리고 서울대학교의 초기역사”란 주제를 가지고 많은 젊은 동문들께겐 새로운 문교의 초기 역사에 대하여 말씀해주셨습니다. Official Bingo machine을 구해오신 양한승(임산공학 89) golf 간사의 진행으로 제 1회 Bingo 대회와 참석인원보다 훨씬 많았던 경품추첨을 재미있게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황효숙(사대 64) 차기회장의 인사와 포부 말씀으로 미네소타 늦가을의 아름다운 연말 총회를 마쳤습니다. 다시한번 이번 총회에 참석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또 준비하느라 수고해 주신 이종욱 (인류 99) 학생간사 및 여러 동문들께 진심어린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글: 성옥진 (치대 87) 2015-2016 총무이사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동창회(회장 최정웅(공대64))는 12월 3일, 토요일에 블루벨에 위치한 '아리수' 연회장에서 2016년 정기총회와 송년회를 가졌다. 85명의 동문들과 가족이 참가해 교가제창으로 시작한 모임은 정기총회에서 박노역(공대71) 재정담당 부회장의 재정보고와 장학기금현황에 대한 조화연(음대 64) 장학위원(전 위원장)의 보고를 듣고 차기 회장으로 박혜란(음대 84) 현 수석부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한편 필라델피아 지부에 할당



샌디에고

지난 토요일 (12/3) 저녁 샌디에고 Town & Country 호텔에서 58명의 동문과 가족들이 참가한 가운데 2016년 샌디에고 동문회 송년회가 있었습니다. 덕수궁 돌담길에 쌓인 낙엽을 밟고 싶은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서늘한 날씨가 오는가 싶더니 갑자기 아침 저녁으로 차가운 바람을 뿜어대는 추운 날씨가 되었습니다. 이 맘 때면 생각나는 동문회 송년모임, 보면 볼수록 그리운 사람들, 만나지 않아도 가까운 사람들.. 어느 때와 같이 동문회 송년회는 기대만 설렘만으로 다가왔습니다.

오후 5시부터 도착한 동문들은 7시까지 와인 시음을 하며 서로간에 대화 꽃을 피웠습니다. 대화하는 동문들의 모습은 마치 봄의 야카시아 꽃 향을 마시며 단맛에 흠뻑 취하듯 그향을 들이키며 복잡한 머리 속을 싹 비우고 잠깐의 맑은 향의 숲속으로 인도함을 받는 듯해 보였습니다. 이렇게 2시간여의 대화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고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7개 테이블에 나누어 착석하여 맛있는 식사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각 테이블마다 인적구성은 50년대 학번부터 00년대 학번까지 다

된 6명의 평의원을 손재욱 미주총동창회장의 설명을 듣고 확정했다.

부페로 차려진 푸짐한 저녁 식사와 2부 순서로 계속된 송년회는 1부 작은 음악회에서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의 트리오 연주와 음대 성악가들의 독창과 중창 등, 아름다운 음악들이 장내를 훈훈하게 만들었다. 이어진 '즐거움 여흥' 시간은 심회진(음대 90) 부회장의 재치있는 사회로 두팀으로 경쟁하는 '이구동성(네명이 한 글자씩 동시에 외쳐 사자성어를 알아맞추기)' 게임과, 년센스 퀴즈등으로 웃음이 그치지 않는 시간을 가졌다.

기계항공공학과 95학번 빈우종 동문은 어린 자녀들과 함께 참석했고, 막내로 참석한 김아라 (경영학 10) 동문이 이선화의 '나 항상 그대를'을 열창해 47학번의 사제진 선배까지 참석한 동문들에게 기쁨을 선사했다.

한편 동창회보 8월호의 '보고싶다 친구야' 특집에서 읽은 글 하나로 졸업한지 72년이 되는 미동국민학교의 옛 친구 이영선(공대52, 서재진 동문 부인)동문을 찾게 되고, '보고싶었던 친구, 루시'까지 만나게 된 송성균(공대 50) 동문의 이야기가 모두에게 감탄을 자아냈다. 마지막 Raffle추첨(1등 40인치 스마트TV)으로 푸짐한 상품을 나누고 다음을 기약하며 모임을 마쳤다.



양했지만 선배님들의 따뜻한 시각과 후배들에 대한 남치는 애정으로 분위기는 화기애애 하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본 순서가 시작되었고 먼저 최흥수 회장의 동문회 활동 소개가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니 거의 매월 행사가 있었고 그 때마다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습니다. 회장의 왕성한 활동력에 다시금 감탄하게 되며... 저 개인적으로는 스타게이징 행사가 가장 인상깊은 기억으로 남습니다. 강력한 회계보고에 이어 올해 수고한 임원들의 감사패 증정, 장학금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이어 차기 임원단의 소개가 있었고 신임 이정석 회장은 전임 회장이 워낙 일을 열심히 잘해 부담을 느낀다고 했지만 다른 스타일로 열심히 해보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올해 임원단도 수고하셨고 차기 임원단인 이정석 부회장, 박상호 부회장, 박성주 부회장, 최진용 총무, 안세진 총무께서 내년 한해 동문회를 잘 이끌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날의 마지막 순서이자 백미는 경품 추첨이었습니다. 4개의 선물이 준비되었고 (청소기,안마기,태블릿,

그릇세트) 각자 원하는 선물에 티켓을 넣고 선물 별로 추첨을 하였습니다. 선물은 골고루 가져가셨는데 마지막 제일 좋은 경품인 청소기는 최흥수 회장 가족이 당첨이 되었습니다. 덩실덩실 춤을 추시면 나오는 형수님의 모습은 마치 미스코리아 전에 당첨된 듯했습니다.. 올해 너무 수고하셨는데 좋은 선물을 가져가게 되어서 보기 좋았습니다.

행사는 적당한 시간에 모두들 행복하게 끝났습니다. 사진촬영을 마치고 돌아가는 동문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는데 각자에게 동문회란 피곤한 영혼의 안식처이자 사상의 고향으로 느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관악 하늘을 바라보며 비슷한 꿈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며 지내왔던 우리 모두들... 이제 2017년 새해를 맞아 각자의 위치에서 의미있는 새출발하시기를 기원해봅니다. 2016년에 샌디에고 동문회 임원진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모든 동문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에도 변함없이 동문회 임원진을 성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후기작성: 박성주 (인문 95), 편집: 최흥수 (자연 87)
사진촬영: 최진용 (자연 00)

남가주

: 후원자 감사 만찬

‘서울대학교 발전재단 및 서울대학교 남가주 총동창회 후원자 감사 만찬’이 12월 1일 LA 다운타운에 위치한 작가의 집에서 열려 100여 명의 동문이 모여 성황을 이루었다.

민일기(악대 69) 총무국장이 사회를 맡고, 서치원(공대 69) 전 총동창회장의 교가 선창으로 시작된 본

행사에서 한종철(치대 62, 전 총동창회장) 남가주 발전위원회 회장은 “남가주에서는 발전재단과 동창회간에 몇 차례 공동으로 기금활동을 성공적으로 잘 하고 있고, 오늘 기부자 및 후원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병연(공대 68) 남가주총동창회장은 “오늘은 그동안 모교 서울대학교에 기부를 해주신 분들과 남가주총동창회를 후원해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를 겸한 송년모임입니다. 특히 저희 남가주총동창회가 많은 행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의 후원과 단과대학장님 및 임원님들의 봉사와 수고 덕분입니다. 그동안 총동창회를 후원하여 주신 분들께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후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발전기금 기부자 대표 박종수(수 의대 58) 동문, 총동창회 단과대학 후원자 대표로 박영국(‘65) 미대회장의 인사사가 있었다. 김인중(농대 74) 발전기금 재단 간사는 발전기금 기부자 현황 발표에서, 2016년도만 해도 약정총액 약 \$300,000, 출연총액 약 \$700,000이며, 미주 발전기금의 30% 이상을 남가주에서 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홍선례(음대 70) 문화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축하연주가 있었는데, 첫 번 순서로 Soprano Solo 강미자(음대

62) 동문이 김동진 작곡 “가고파”, 최영섭 작곡 “그리운 금강산”, 두 곡을 열창하였다. 김유은(음대 07) 동문은 Violin Solo로 “Johannes Brahms 의 Hungarian Dance No. 2”와 “Antonin Dvorak 의 Slavonic Dance”를 연주했는데, 그 섬세하고 날렵한 선율은 매우 환상적이었다. 제갈소망(음대 02) 동문의 Piano Solo, “Ravel 의 La Valse”는 혼신을 다한 열정적인 연주였다. 끊이지 않는 환호와 앵콜 박수에 “크리스마스 캐롤 메들리”를 연주하였다. 끝으로 이학진(농대 71) 행사위원장이 진행을 맡아 노래자랑으로 계속되었고, 많은 동문들이 가수 못지 않은 기량들을 마음껏 발휘했다.
글: 홍선례 (음대 70) 편집위원



: 서예클럽

지난 4월부터 남가주 동창회에서 는 지산 정인환(법대 54) 동문을 모시고 서예반을 개설하였다. 정인환 동문은 미주한인 서예협회전, 전미 일본 서예공모전, 서울 아시아 미술초대전 등에 다수 출품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한미수석협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으며, 서예와 수석 채집으로 일관된 일생을 살아가며, 다년 간 학생 지도에 열정을 쏟고 있다.

2015년 3월 10일에 “PARKVIEW Gallery”에서 팔촌 기념으로 개최한 서예전 및 수석전은 동문들과 친지들이 참석하여 대성황을 이루었다.

정인환 동문의 서예에 대한 수선관(修善觀)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글씨의 기예-예술(伎藝-藝術)을 화초의 색채(色彩)에 비유하고, 둘째 글씨의 장법-구도(章法-構圖)를 화초의 운치(韻致)에 비유하고, 셋째 글씨의 구의-문의(句義-文

意)를 화초의 향기(香氣)에 비유한다.”

“처음에는 구양순(歐陽詢)체 교본’으로 시작하였고, 이 책이 끝나면 곧 권자문(千字文)으로 들어 갈 예정이며, 내년에 제자 전시회를 열고 싶다. 또한 이 서예반의 모든 교습비는 총동창회에 기부할 예정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문서체는 크게 전서, 예서, 해서, 행서, 초서로 나눌 수 있고, 서예를 하는데 필수 도구는 화선지, 붓, 먹, 베틀인데 이를 지필묵연, 또는 문방사우(文房四友)라 한다. 기타 필요한 도구로는 종이를 누르는 데 쓰이는 서진(書簞,또는 문진), 물을 담아 두는 연적(硯滴) 등이 있다.

서예의 심오한 뜻은 기법의 연습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기법과 병행해서 정신수련을 중요시한다. 중국에서 서(書)는, 육예(六藝), 즉 예(禮)·악(樂)·사(射)·어(御)·서(書)·수(數) 중의 일부분으로 인간의 선행 수련이며, 많은 위인들이 생애를 바쳐 계속 발전시켜 왔다. 서예는 실용적인 요구와 서예적 만족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인간의 영원성을 추구하는 도(道)로서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열렬히 요구되어 왔다고 한다.



서예반 회원으로는, 김태윤(법대 53), 김규현(법대 53), 한효동(공대 58), 박영국(미대 65, 미대회장), 진관보(의대 72), 조무상(법대 70, IT위원장), 김병연(공대 68, 총동창회장), 홍선례(음대 70, 문화위원장) 등이다.

매주 수요일, “작가의 집 동리홀”에 들어서면, 먹물에서 뿜어 나오는 그윽한 향기에 침착되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붓글씨에 푹 빠져 버린다. 일주일만 더 기다려지는 이유는, 붓글씨도 재미있지만 정인환 동문의 열정적인 지도 때문인 것 같다.



한 번은 정인환 동문이 정원에서 열매를 따다 넘겨져 다쳤는데, 병원에서 주사와 치료를 받고 모임에 오시어 회원들을 놀라게 하였다. 우리의 열의가 스승의 열의보다 못한 것이 매우 미안스러워지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스승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했다. 동문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올해 12월은 쉬고, 2017년 1월초부터 다시 시작된다.

문의 : 홍선례 213-503-6964 / hong-sunrye@gmail.com

글: 홍선례 (음대 70) 편집위원



김유은 동문의 연주는, 거침없는 활의 놀림과 선이 굵으면서도 섬세하게 표현해 내는 선율에서 깊이 있는 기품도 보인다. 모든 무대를 드라마틱하고 생명력 넘치는 연주로 채우며 항상 열정이 넘쳐나는 연주이다. 김 동문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예비학교, 예원학교, 서울예고, 서울음대를 거쳐 현재는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서 전액 장학생으로 바이올리니스트 Midori Goto를 사사하고 있으며 Violin Instructor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2015년에는 Zaffre Quartet을 창단해 뉴욕과 보스턴을 중심으로 실내악 연주를 활발히 하고 있다.
www.facebook.com/yueunkimviolin

뉴욕

: 한인사회연구재단

뉴욕 소재 ‘한인사회연구재단’이 지난 11월 5일 제 7 회 Annual Conference와 Dinner Party’를 개최했다.



: 비전케어의 ‘Eye Camp’실시

김정화동문(미국명 김사라 음대 85)이 지난 11월 5일 부근 다니엘 김이 운영하는 뉴저지 펠리세이즈파크 ‘섬모안과병원’에서 국제실명보호기구인 ‘비전케어(Vision Care) USA’가 주최하는 제1회 NY, NJ ‘Eye Camp’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안과전문의 8명, 간호사 2명 등의 의료진과 3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 시력,안압,굴절 검사등을 무료로 실시했다. 특히 이번 검진에서는 백내장 수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5명이 선정돼 올 연말까지 무료 수술을 제공받게 됐다.

비전케어는 2002년 서울에서 자원봉사팀으로 출발 파키스탄에서 실명구호 활동을 시작으로 지난 15년간 아시아, 아프리카와 중남미 38개국을 통해 225회의 아이캠프를 통해 13만명이 넘는 환자들진료했고, 무료 배내장과 소아 안과 수술을 실시해 왔다.

올해 컨퍼런스의 주제는 ‘Korean Religious Experiences in the U.S.’였다. 한인사회연구재단은 2010 년 설립된 비영리재단으로 매년 다양한 주제로 100년이 넘는 한인 이민사를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통계를 내고 기록으로 남기고, 책으로 발간하여 후세에게 이민 1세대가 살아온 길과 그들이 살아갈 길의 이정표를 제시

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올해는 그동안 상임고문으로 봉사해 온 정해민(법대 55) 회장과 김영택(공대 53) 이사장의 퇴임식이 있었다. 이외에도 강에드워드(사대 60)와 연봉원(문리대 61) 동문이 이사로 수고하고 있다. 특별히 축하공연에는 Rutgers 음대 강사인 이예은



(음대 05) 동문의 특별 기타 연주가 있었다.

재외한인사회연구소 (The Research Center for Korean Community at Queens College, 소장 민병갑 교수, 문리대 63) 를 후원하는)는 재미한인에 대한 연구를 장려하고, 재미한인에 관한 데이터와 자료를 한인 커뮤니티, 대학, 관련 연구기관, 한국 및 미국 정부기관에 배포하기 위해 2009년 뉴욕 퀸즈 칼리지 내에 설립된 비영리 연구기관으로 재미한인 데이터뱅크 웹사이트를 2012 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http://www.koreanamericandatabank.org)

글: 허유선(가정대83) 편집위원

게시판

동창회/동문들의 행사/소식을 알립니다.

소식을 알리고 싶으신 분은
news@snuaa.org로 이메일 주십시오.

모교 국악 연주단 순회공연

모교 국악과 교수 및 학생들로 구성된 연주단 (SNU Korean Music Ensemble) 의 미국 순회공연이 미주동창회와 각지부 후원으로 다음과 같이 펼쳐질 예정이다.

- 12/14 (수) 7:20pm Los Angeles (Concert), Korean Cultural Center(한국문화센터) Los Angeles
- 12/15 (목) 10:30-11:00am LA (workshop), Korean Cultural Center Los Angeles
- 12/17 (토) 5:30pm Austin, Texas (Concert) Asian American Resource Center
- 12/20 (화) 7pm 서부팀 Los Angeles (Concert), House of Writers(작가의 집), Art hall /
- 12/20 (화) 6pm 동부팀 Boston (Workshop & Concert), New England Conservatory Jordan Hall 324 room
- 12/21 1pm Philadelphia (Concert), Passi (펜아시아 복지원) Boo Nam Park Memorial Hall
- 12/27 7:30pm New York (Concert), Scholes Street Studio, Brooklyn

시애틀

: SNU 포럼 세미나

서울대동창회 시애틀 시니어클럽(회장 김재훈(공대 72))이 제공하는 11월 세미나가 ‘합성생물학 (Synthetic Biology)의 최근 연구 동향과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UW Bioengineering Department에서 Act-ing Assistant Professor로 근무하고 있는 김경혁 (자연대 98졸)박사의 강연으로 열렸다.

합성생물학 (Synthetic Biology)은 생명과학(Life Science)적 이해의 바탕에 공학적 관점을 도입한 학문으로 자연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인공생명체를 설계, 제작 및 합성하는 새로운 학문 분야로 생명정보의 저장암호인 DNA를 읽는 기술과 DNA를 인공적으로 합성하는 유전자 재조합 기술에서 시작되었고, 21세기를 맞아 유전공학의 급속한 발전과 유전자 조절 시스템 발명의 영향으로 합성생물학의 영역은 더욱 확장되고 있으며, 생명체의 복제를 넘어서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인공생명체를 제작 및 합성하는 단계로 발전해 나가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미 우리 주위에는 유전자 변형식품(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

ism), DNA 검사, 줄기 세포등 바이오 기술이 많이 다 가왔지만, 인간의 통제하에 바이오 기술을 보다 산업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합성생물학이 응용될 수 있다.

합성생물학은 모듈화, 표준화와 같은 공학적 접근을 통해 생물 시스템의 주요 개념을 분석하고 설계하기 때문에, 기존의 DNA, 세포, 개체 등을 수정 및 변경하는 수준에 그쳤던 유전공학 (Genetic Engineering)과는 차이가 있으며, 그 특징은 여러 기계 부품을 사용하여 기계장치를 만들듯이, 표준화된 생물학적 부품을 조합하여 새로운 생명시스템이나 인공생명체를 만든다는 것이다.

인공생명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생물학시스템을 컴퓨터로 모델화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DNA 염기서열 분석과 유전자 합성 기술이 필수적인데, 이러한 기술들을 사용하여 작은 세포의 DNA 일부 또는 전체를 인공적으로 합성 한 후, 세포에 삽입하여 인공세포를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현재 합성생물학의 기술 수준은 인공 미생물이나 박테리아

를 만드는 단계까지 도달했다.

세미나에서는 다음의 질문과 함께, 합성생물학의 최근의 연구동향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 유전자 조작은 안전한가? 악성 돌연변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 수학, 물리, 컴퓨터 공학, 정보학이 어떻게 합성생물학에 사용되는가?
- 인공 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에 쓰이는 알고리즘 (예를들면, Machine Learning)을 이용해서 유전자 회로를 설계할 수 있는가?

세미나후에는 김재훈 회장님께서 Potluck으로 종강 파티겸 점심식사를 즐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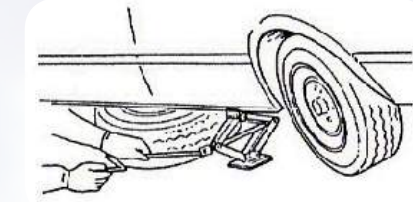


한 30여년 전 어떤 추운 겨울날,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뒤에서 어떤 차가 따라오며 계속 클락션을 울려서 뒤를 보니 자주 내 타이어를 가리키며 나가라고 손짓을 했다.

차를 service road로 끌고 나오며 그제서야 flat tire가 된 것을 알았다. 지금이나 그때나 차를 몰 줄만 알았지 차에 대해 아무 지식이 없는 나는 flat tire가 된 줄도 모르고 큰길에서 운전을 하고 있었으니..

그 추운 겨울날에 갓난애기를 안은 부인을 차 안에 앉혀두고 내 트렁크에서 spare tire를 꺼내어 갈아 끼워주며 집에까지는 갈 수 있으니까 되도록 빨리 체크해서 제 타이어를 끼란다.

너무 고맙고 미안해서 안절부절하며 pay하고 싶다고 이름과 주소를 좀 달라고 했더니 당



박은숙(미대 62)

신 christian이냐고 물길래 그렇다니까 이담에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렇게 도와주는게 나한테 보답하는거라고 말하곤 서둘러 떠났다.

나에게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사랑의 ‘나눔’을 몸소 실천한 분이었습니다. 되돌아 올 것을 바라지 않는 순수한 “나눔”이 참 사랑이란 걸 두고두고 잊지않게 해 준 잊지못할 고마운 분이었지요.

날씨는 차갑지만, 마음은 따뜻해지는 12월, 성탄과 선물, 그리고 한 때는 가까웠지만 잠시 소원했던 사람들을 생각나게 하는 계절이다.

6일 저녁, 라이라이 중식당에서 편집위원 9명과 손재욱 회장의 부군 Tim Haahs 목사님, 그리고 필라에 잠시 방문 중인 조인제(법대 90) 동문 등 11 명이 원탁에 둘러 앉았다. 1년 반 전만 하더라도 서로 잘 몰랐던 동창들이었지만, 동창회보 편집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스스럼없는 가족같은 분위기가 되어진 편집위원들.

책임 완수가 우선인지라 비록 이곳이 식당이었지만 우리는 먼저 편집회의를 하였다. 어떤 글이 올라지고 어떤 그림이 적당한지 그리



내년에는 더 신선하고 동문들의 취향에 맞는 수준높은 신문을 발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지재원(사대 68)

나의 나눔경험은 큰 것과 작은 것이 있다. 작은 나눔은 기회있을 때 마다 각종 단체(예를 들면 Doctors without Borders)에 소액의 기부를 한 것이다. 은퇴후 소액의 연금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이 나눔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유감이다.

고병철(법대 55)

Socratic Method(대화, 토론식 수업)으로 진행한 국제법의 강의는 학생들에게 호평을 받아 “잘 가르치는 교수” Silver Circle Award - 의 후보로 올라가기도 했다.



70세가 되던 해, 40년 동안의 banker로서의 career를 청산하고 은퇴했다. 은퇴 후 우연히 사진에 취미를 부치게되어 아내의 허락(?)을 받아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예전에도 사진취미는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시간도 내야하고 비싼 사진장비도 사야 되니 아내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었다.

처음, 여러가지 사진촬영에 필요한 카메라, 렌즈, 필터, 삼각대등 자본을 상당히 투자해 장비를 구입하고 경치좋은 곳을 돌아리회원과 나 혼자만 찾아 다니게 되니, 아내의 나눔의 이해가 없는 어려운 일이었다.

은하수와 별사진 찍는다고 밤잠 설치고, 여명을 찍는다고 새벽 3-4시에 일어나기도 하며, 깊은 산속에 천막치고 추위에 떨고,



김영덕(법대 58)

바닷가에 tent를 치고 밤새도록 갈매기 울음소리에 한 잠도 못자는 고생을 해야했다. 어려운 출사 때도 회원 상호간 나눔의 이해없는 좋은 사진을 찍기 어렵다고 본다.

나는 성격이 낭비를 안하는 짚돌이고 아내는 퍼주기 좋아하는 씬 씬이가 커서 우리부부는 서로 단점을 때꾸어 주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이제 몇년만 더 지나면 사진 찍으려 다닐 기력도 떨어져 집에서 아내 눈치보며, 설거지, 청소로 도와 주어야 될 것 같다. 몸이 약한 아내를 위해 늦게나마 가사일을 조금 나누어 도와줄 수 있는 나눔의 실천을 하게되니 다행이다.

상대방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그를 돕는 것은 ‘나눔’의 기본이다. 하지만 단순히 남을 돕기만 하면 다 ‘나눔’인 것은 아니다. 진정한 나눔은 서로 대화하고 공감하는 데서 출발한다. 그렇다면 도움, 소통, 공감의 세 박자를 모두 갖춘 ‘진정한 나눔’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이란 어떤 것이 있을까? 진짜배기 나눔이라면 서로 소통하고 마음으로 함께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고, 그 시작은 바로 언어의 이해에 있다고 생각한다.

‘손말사람’은 2016년, 27주년을 맞이한 유서 깊은 중앙동아이다. ‘손말’, 즉 수어를 다 함께 배우고 이를 나눈다. 흔히 언어는 문화를 반영한다고 한다. ‘손말사람’ 동아리원들은 수어를 배우면서 농인의 언어와 그 안에 담긴 문화를 익힌다. 일주일에 한 번, 동아리실에 모여 간단한 수어 표현들을 배우고, 지역의 수화통역센터에서 열리는 수화 교실에 참석하

그중 ‘손말사람’이 오랫동안 명맥을 이어갈 수 있었던 까닭은 봉사활동을 단순하게 여기지 않고 농인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그들의 언어로 이야기하고 마음 깊은 곳까지 이해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일 것이다. 26년간 300명이 훌쩍 넘는 선배들로부터 이어지는 ‘진정한 나눔’의 가치는 지금까지 한결같다.

2015년,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됨으로써 ‘수화’는 하나의 독립된 언어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농인들은 공공서비스를 비



깨달음과 변민
살아오면서 몇 번의 힘든 고비를 만날 때마다 저는 누군가를 도우며 삶의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내가 돕는 사람들을 통해 나의 어려움이 얼마나 상대적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럴 때면 아예 나눔의 삶을 살고 싶기도 했지만, 이기적인 마음에 일상으로 다시 도망치게 됩니다.

일상 속 한 걸음
나눔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큰 다짐으로 시작하기보다 평소 일상생활 속에서 타인을 위해 나의 능력을 베푼다면 그것이 나누는 삶의 시작이 아닐까요?

박소연(자연대 14)



조정빈(인문대 14)

나눔은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적은 사람이 연로한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고, 돈이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나누는 사람과 나눠 받는 사람이 만나, 서로의 가치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김정식(인문대 14)

어렸을 때 가족과 주위 사람들에게 참 많은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자랐습니다. 그것은 제가 삶을 살아가는 데 소중한 밑거름입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나눔의 모습은 누군가를 사랑하며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복진(자연대 15)



어린 시절 겨울에 밖에서 놀다가 집에 돌아오면 손발이 차가웠다. 어머니는 바쁜 일을 멈추고 따뜻한 손으로 감싸주시고 입김으로까지 손을 더욱 따뜻하게 해주셨다. 모자 간에 아무런 질투심, 이해타산, 경쟁이 없는 무조건적의 사랑이 손바닥 뿐만 아니라 온 마음까지 모성애로 훈훈하게 해주셨다. 누구나 체험하지 못한 어머니의 사랑은 나눔을 진정으로 실천하신 분을 보여주셨다.

모성에 못지않게 나눔이야기에서 워렌(Warren) 씨 내외를 잊을 수가 없다. 조카가 6.25 때 참전, 제대 후에 내가 유학중인 대학에서 특강을 했을 때 그를 만났다. 끝이어서 자기의 삼촌 내외를 소개받아 독신시절부터 결혼 후까지 줄곧 우리를 한결같이 돌보아 주셨다. 물심양면의 도움으로 어려운 유학시절을 감수히 지낼 수 있게 최선을 다해준 내외분이다. 워렌 씨는 비싼 로스트 비프를 요리해서도 “햄버거” 먹으러 오라고 수시로 우리를 초청했다. 결혼 후 가구와 집시등도 나눠주었다. 나에게 양복 한 벌도 주었는데 집사람이 손으로 고쳐서 입게 해 준 사실을 듣고 휴가 중에는 큰 재봉틀까지 빌려주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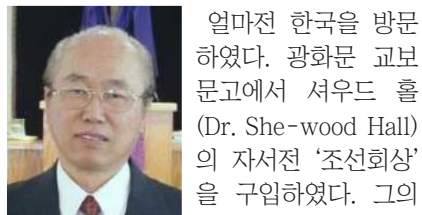
학위를 받고 대학에서 가르치게 되어 워렌 씨 내외분께 사제 겸 작별인사차 방문했다. “이처럼 아낌없이 우리를 항상 돌보아 주셔서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여쭈었더니 “후일 불우한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갚아주는 일” 이라는 잊을 수 없는 교훈을 받았다. 이 귀중한 당부를 실천할 때마다 보람을 느낀다. 자기들도 신혼시절 어려웠을 때 도움을 준 부부가 같은 가르침을 주었다고 말했다. 우리 모두가 이같이 서로의 나눔이 면면히 이어진다면 정말 아름답고 즐거운 삶이 되리라고 확신한다.

파라서 나는 사해(死海)와 야구를 비교하게 된다. 전자는 요르단 강물이 흘러 들어가지만 빠져나가질 않는다. 오랜 세월동안 소금이 축적되어 다른 생물이 살지 못하고 이름처럼 죽은 바다이다. 다만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라도 절로 뜬다는 곳이다. 사해는 받기만 하고 남을 도움 줄 모르는 인색한 사람의 상징이다. 이 기적적이 동정이나 자선에 무관심한 구두쇠이다. 찰스 디킨슨의 명작 Christmas Carol의 주인공 “스크루지”가 과거, 현재, 미래의 세

우리 모두가 물심양면의 소유를 남에게 베풀어주어 나눔의 기쁨을 만끽하는 것이 야구 선수가 가르쳐 주는 삶의 으뜸되는 교훈이 아닐까?

김기훈(상대 52)





얼마전 한국을 방문하였다. 광화문 교보문고에서 셔우드 홀(Dr. She-wood Hall)의 자서전 ‘조선회상’을 구입하였다. 그의 아내, 부모등 4명이 모두 의사로 조선에서 의료선교 개자로 일생을 바친 한국 초기 기독교 선교역사를 생생하게 보여 주고 있다.

그 책 내용 중 ‘화진포의 성’이 등장한다. 다 읽기도 전에 전혀 예상치도 않게 동해안 3.8선 이북 DMZ 최북단에 있는 그곳을 답사하며 큰 보물을 찾은 기분이었다.

건물과 주위환경이 책속의 당시 사진과 같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동해 바다가 내려다 보이고 푸른 소나무가 우거진 나지막한 작은 산등성에 아름다운 하얀 돌집이 홀로 서있는데 그 규모는 작았지만 독일 성(castle)을 연상케 하였다. 히틀러 독재에서 도망 조선으로 피난하고 있던 독일 건축가 웨버 (Herr Weber)가 라인강변의 한 성을 모델로 하여 직접 설계하고 건축한 것이다. 100여년전 미국 선교사의 경험을 직접 집필한 책속의 현장을 내 눈으로 확인하게 되니 사색내용이 가깝고 친근하게 느껴졌다.

[역사] 100년전 조선회상

또한 나의 과테말라 선교와 비교하면서 줄을 쳐가며 열심히 읽었다. 많은 부분에서 공감을 주고 구체적인 모델을 제시해 주고 있다.

한국이 지금은 세계적 문명국가로 발전하였지만 불과 백년전 당시 미국 선교사들의 눈에는 세계에서 가장 미개한 나라로 인식되었다. 책 속에는 젓가슴을 열어 놓고 아기에게 모유를 먹이는 사진이 있다. ‘조선사람들은 젓가슴 노출을 서양인의 팔꿈치를 내 놓는 정도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라고 혹평하였다. 선교사에게 시골 여행시 ‘버스를 타기 전 물을 마시지 말라’는 대목도 있다. 이는 조선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가다 세워놓고 길가에 서서 미개인처럼 소변 보는 것을 지적한 말이다.

또한 신임 의료선교사에게 “당신의 시계는 환자들의 맥박을 재는 일 외에는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시간을 따지지 않는 조선에 와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과테말라를 보면 100년전 미개지 조선에는 금금만 있었는데 나의 눈에도 목격되고 있다. 조선회상은 과테말라를 더욱 이해하게 하였다.

셔우드 홀 부부는 해주에 결핵요양원 설립, 교회당 건축, 모범 농장 설립등 성공적인 농촌을 개발하였다. 마을 중앙에는 빨간 지붕의 교회와 푸른색 과수원과 풀을 뜯어 먹는 홀스타인 젓소등 색깔의 조화를 이루어 아름답고 풍성한 마을임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 의료, 목회, 농업등 전문인 선교사들이 함께 협력선교를 통해 마을이 정신적 (영적),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자립을 하고 있다. 나의 과테말라 산칼로스대와 공동으로 하는 농촌개발 사업에 모델이 되며 용기와 확신을 주고 있다.

해주 농장 설립 과정을 보면 현재도 미국에서 유명한 제이시 페니 백화점의 창시자 페니(James Penney)는 당시 착실한 기독교인으로 크게 성장하는 사업가인데 그렇게 바쁜 과정에도 알지 못하는 조선의 현실과 제시 페니같은 후원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 미국에서 잘 살 수 있는 특권을 내려놓고 가난한 조선을 택한 사람들이다. 당시 조선에는 금금만 있었는데 사과묘목 150개를 미국에서 들여와 황해 지역에 퍼지게 하였다.



젓소, 젓염소등 새로운 품종을 수입 우유도 먹게 하였다. 정부가 아닌 선교사들에 의해 한국의 서양식 농업과 낙농업이 소개된 것이다. 100년 전 그렇게 게으르고 못살던 조선인들이 지금은 ‘빨리빨리’ 문화로 바뀌어 세계 선진국으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미국에 이민와서도 한인들이 다른 어느 나라 이민자들보다도 더욱 발전한 기본 중에는 미국 선교사들의 조건없는 헌신과 제시 페니같은 후원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 미국에서 잘 살 수 있는 특권을 내려놓고 가난한 조선을 택한 사람들이다.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재미 한인들로서 그들에게 빛진 자들임을 깨닫게 해 주고 있다.

나의 지기는 누구인가?



고영주(사대 63)

음식처럼 매일 필요한 친구, 약처럼 가끔 필요한 친구, 질병처럼 항상 피해야 하는 친구, 탈무드는 이렇게 세 부류의 친구가 있다고 했다. 논어의 첫장 첫줄에서도 벗은 즐거움의 대상임을 강조했다. 중국 전국시대에 거문고의 달인 유백아의 음율을 알아주는 사람은 오직 종자기뿐이었다. 종자기는 웅장한 산의 모습과 우렁찬 격류의 기상을 깨달은 것이다. 그러나 종자기가 죽은 것을 알고 백아는 더 이상 거문고를 타지 않고 그 줄을 끊어버렸다는 백아절현의 고사가 있다. 그래서 절찬된 벗을 ‘지음(知音)’이라고 한다.

제나라 재상 관중은 포숙과 장사를 했는데 관중이 이익을 더 많이 챙겨도 포숙은 그를 욕심장이라고 하지 않은 것은 집이 가난함을 알기 때문이었다. 관직일로 사람들이 무능하다고 해도 포숙은 그가 시운을 잘못 만난 탓이라고 했다. 사업에 실패했을 때도 일에는 성패가 있음을 알기에 용렬하다고 하지 않았다. 관중이 전쟁에 나가서

세 번이나 도망쳐 나왔으나 비겁하다는 말 대신 집에 늙으신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이라고 이해를 했다.

훗날 관중은 ‘나를 낳으신 분은 부모요, 나를 알아주는 이는 포숙이다’라고 포숙의 우정에 감격했다. 이처럼 관포지교는 절대적 이해의 산물이었다.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다는 연파와 인상여의 문경지교도 참회의 결과였다. 삼고초려한 유비는 공명과 절실한 만남을 수어지교라고 표현했다. 죽마고우, 막역지우, 교철지교, 지란지교, 금란지교, 단금지교 등 이러한 두터운 교분은 한결같이 의리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모정은 너무 절절해서 울고 연정은 너무 연연해서 가슴이 타고 우정은 난초 향기처럼 언제나 은은하고 든든하기만 하다. 우정이 넘친다고 해서 다 지기가 되는 것도 아니다. 지기는 지기지우(知己之友)에서 온 말이다. 자신을 알아주고 아껴주는 벗이다. 지기는 나에 대한 철저한 배려를 의미한다. 각박한 세상에 지기가 있다면 참 부러운 사람이다. 과연 나에게도 한 명쯤 지기가 있는가 깊은 생각을 하게 한다.

‘모수미 선생님을 그리며’



1962년 내가 수원에서 대학 생활을 시작할때는 졸업해서 농촌으로 들어가 농촌 계몽을 해보겠다는 내 의지가 아직도 충만했을 때였다.

그때 여러 교수님들 중에서도 모수미 선생님(사진)의 영향이 가장 컸었고, 내 미래의 인생 항로를 잡아 주신 것 같다. 녹원사 (여자기숙사) 사감으로 계시면서 매 일요일마다 선생님이 가셨던 천주교에 데리고 가셔서 교리 공부까지 하도록 주선하셔서 결국은 나도 천주교 신자가 되었다.

또 4학년 겨울 방학때 광주에 내려오셔서 나를 현 대전 신학대학 (당시

미 예수회 신부님들이 서강대학과 같이 운영했음)에서 영양사/식당 관리인으로 첫 사회 발을 단계 도아 주셨다. 그 후도 계속 지도해 주셔서 내가 학과 운영인들로부터 극찬을 받을 정도였다.

둘이켜 생각하면 천주교 신자인 현 남편을 만난 것도, 어느 직무에서도 인정을 받으며 일했던 것도 모두 선생님의 철저한 지도 덕이라 생각한다. 이제 나 은퇴하고, 가끔 선생님이 아직도 건강하게 사회 봉사하고 계시다는 소식을 접할때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선생님을 소홀히 대했나 하는 죄책감이 들기도 한다. 다음에 한국 나가면 만나 뵙고 내 마음을 전하고 싶다. 정말 꼭 뵙고 싶은 분이시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기를 염원한다.”

정원자 (농대 62)

*두분은 이번 홈커밍데이에서 30년만의 반가운 해후를 가졌다.



지난 3월26일 토요일 아침 8시경에 집에서 출발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었다. 왜냐하면 이틀 전 목요일 음지 설산 지역을 두려워하였던 아내 때문에 처음으로 8,800피트 능선을 오르다가 이를 후 양지의 험준한 옛 산길(수년 전 수차례 체합했던 비밀 산길)쪽으로 오르기로 약속을 받고 한참을 내려오다가 산장에 살고 있는 6세 소녀가 앞장서서 35세의 어머니와 같이 자팡이도 없이 험하게 오르던 모습을 보자마자 아내가 깜짝 놀라면서 같이 사진을 찍자고 하면서 급년 엘니오 기후임에도 불구하고 1월, 2월, 3월 매주 1회 이상씩 15회의 설산을 오른 남편을 태산같이 믿고 환호한 양지쪽을 택하지 않고 오늘의 설산 도전을 하기로 결심하였기 때문이다.

“88세 회혼식까지 이 산을 계속 오릅시다”

79세 동갑내기 부부의 Mt. Baldy 설산 등정

당시 77세 동갑내기 부부의 ‘백두대간 여명의 별’이라는 제목의 백두대간 산행기 출판을 구원 조부님과 송재 아버지님 영전에 봉헌한 후에 8월27일 귀미한 후라 여동으로 참여할 마음이 없었지만 바로 이튿날 50여명이 참가하여 정상에 열댓명이 오리 호수(Duck Lake, 1만2천 피트)로 등정하였다.

바로 그때가 2, 3마일을 여유롭게 호수를 걸어오던 77세 부부가 그 지역 신문인 ‘SHEET’(2014년 9월25일자)



그 아들의 효심에 큰 감동을 받고 큰 아들과 작은 아들에게 일깨워 주기로 하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금년에 동갑내기 79세를 맞이하여 오늘 뜻 깊은 기념 산행을 하자고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꼭대기 정상에 올라가 태극기와 통일 깃발을 들고 백두산 천지와 금강산을 잇는 백두대간 북쪽 산행을 기원하자고 다짐하였다.

김석두(농대 58)

에 톱기사로 올라 ‘부부산행 가화만사성’의 최고 유산을 만들었던 때였기 때문이다.

금년에 주 1회, 가끔 2회로 우리 부부가 오른다면 남편은 500회, 아내는 300회, 그리고 두 손자가 수십번, 큰 아들이 십여차례, 큰 며느리는 몇차례를 올랐으니 200회로 합류한다면 도합 1,000번을 채울 수 있으리라 희망해본다.

그러나 산장에 살고 있는 영국계 미국인 친구가 20년 이상 살면서 주 1회로 1,000번 이상을 올랐으나 자신의 아내는 단 한번도 오르지 않고 산장에 살기 싫어해 이혼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을 들려주면서 효자 효녀 하나씩 있다고 자랑스러워 하면서 앞으로 10년을 매주 1회씩 좋은 날씨에 부부산행을 하면 500번은 자동 계산이 된다고 하면서 격려를 받았던 때를 떠올리며 정상에 올랐다.

바로 그때 아내는 나에게 우리 부부사진을 찍어줄 분을 찾았노라고 함성을 질렀다. 그는 71세의 독일계 미국인 남성으로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보잉 항공회사 우주공학 엔지니어로 일한다고 하면서 65세인 아내와 1남1녀를 두고 있다고 하며 정성스럽게 사진을 6번이나 찍어주었다. 그 보답으로 통일 보자기 깃발(One Korea)과 미국산 산행 에너지 한 통을 선물로 드렸더니 너무나 고맙다고 하면서 자기 사무실 벽에 붙여놓고 한국 통일을 기원하겠다고 하면서 자기도 평화와 인도주의 신념으로 살고 있다고 하였다.

아내와 같이 내려오면서 언젠가 미국인 동갑내기 부부가 들려줬던 말을 회상하자고 했다. “우리 동갑내기 부부 산악인은 같은 해 태어나서 같은 해 죽으니 너무나 행복하다고...” 그러던 9년 후 회혼식의 날, 88세까지 이산을 올라와야 한다고 다짐하며 석양을 즐기며 초저녁밤 산행을 즐기고 내려왔다.

네 삶을 사랑하라



이태상(문리대 55)

‘딜버트(the Dilbert comic strip)’ 풍자만화가이자 설득 화법 전문 저술가 스콧 애덤스(Scott Adams)는 진작부터 내다봤다.

“도널드 트럼프는 설득력에 있어 지구상 최고다. 이런 독보적인 능력이 있기에 그는 공화당 대선후보로 지명될 것이며, 11월 본선에서도 기록적인 압승을 거둬 백악관에 입성할 것이다.

스콧 애덤스의 명언 한두 마디 음미해보자. “창조성이란 자신에게 실수를 허용하는 거다. 그 실수 가운데 어떤 걸 쟁길 것인지라는 아는 게 예술이다.(Creativity is allowing yourself to make mistakes. Art is knowing which ones to keep.)” “엔지니어들은 문제 풀기를 좋아한다. 주변에 문제가 없으면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들을 만들어 낸다.(Engineers like to solve problems. If there are no problems handily available, they will create their own problems.)”

1990년대 스콧 애덤스가 주창한 ‘딜버트원칙(The Dilbert principle)’이란 것이 있다. 회사들은 직원중에서 가장 유능치 못한 사람들을 경영진에 승진시키는데.그들이 회사에 끼칠 수 있는 손해를 제한하기 위해서란다. 우리말로 풀이하자면 ‘반풍수가 집안 망치고 선무당이 사람잡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자, 이제 미국 대선 공화당 경선에서 거의 모든 사람의 예상 외로 16명의 경쟁자들을 따돌리고 최종 지명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11월 본선에서도 또한 모든 예상을 뒤집고 당선자가 된 도널드 트럼프의 다음과 같은 말도 음미해보자. 당신은 ‘행운이란 기회가 준비를 만날 때 찾아온다 (Luck is when opportunity meets preparedness).’ 는 말을 들었을 것이다 나는 이 말에 동의한다. 누구 누구는 운이 좋다고 (마치 자신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걸 강조하듯이) 사람들이 말하는 걸 자주 들었다. 내가 생각하건대 사실은 불행하는 사람들이 “운이 좋도록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다. 당신의 운이 좋으려면 큰 일을 준비하시라.

그렇다. 영화를 보는 게 더 재미있겠지만 당신이 영화산업에 뛰어들 생각이 없다면 시간 낭비다. 당신의 재능을 개발하려면 노력이 필요하고, 노력이 행운을 가져온다. 성공에 대해 이런 마음 가진과 태도를 갖는 것이 당신의 보람있는 인생 코스를 밟는 지름길이다. 한 동안 말들이 많았다. 좌절감이다 걱정거리다 하는 것들을 가슴 밖으로 발산해 버리는 게 건강에 좋다 고, 어느 한도까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나치면 곤란하다. 최근 글을 하나 읽었는데 아무런 대책 없이 불평만 하는 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해롭다는 거였다.

인터넷 시대가 도래해 블로그 등 각종 매체가 있어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시간을 부정적인 데 소모하고 있는데, 불균형이 강조되고, 이런 부정적인 포커스는 상황을 호전시키지 못한다.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생각해 보기도 전에 그 문제에 빠져 허우적거리는라 진이 다 빠지지 않도록 할 일이다. 그러는 건 미친 것이다. 긍정적이고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관찰하기 위해서는 열정적인 정신력과 에너지가 있어야 한다. 부정적이 되기는 쉽고 안일하다. 당신 정신력의 포커스를 적극적인 해결책에 맞추라. 그러면 이런 네 정신상태가 네 행운을 창조할 것이다.

You may have heard the saying “Luck is when opportunity meets preparedness.” I agree. I’ve often heard people talking about so-and-so is so lucky (as if to emphasize that they themselves are not lucky). I think what’s really happening is the complainers aren’t “working themselves into luck.” If you want to be lucky, prepare for some-thing big. Sure, it might be more fun to watch movies, but unless you’re going into the film industry, it’s not the best use of your time. Developing your talents requires work, and work creates luck. Having this attitude toward success is a great way to set yourself on a rewarding course for your life. There was a lot of talk for a while about vent-ing your frustrations and anxieties

and how it might be healthy to get them off your chest. To a point, yes, but to an exaggerated degree, no. I read an article recently about how complaining without doing anything about it is actually detrimental to physical and mental well-being. With the advent of blogging and all the other sorts of opinion-gushing venues available to everyone now, people are spending way too much time harping on negative themes. The emphasis is out of balance, and the negative focus doesn’t help the situation. Don’t dwell so much on a problem that you’ve exhausted yourself before you can even enter-tain a solution. It just doesn’t make sense. It takes brainpower and energy to think positively and creatively—and to see creatively and positively. Going negative is the easy way, the lazy way. Use your brainpower to focus on positives and solutions, and your own mind-set will help create your own luck.

이상과 같은 트럼프의 말은 토마스 에디슨의 말을 상기시킨다.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땀이다. (Genius is one percent inspiration and ninety-nine percent perspiration.)”

동시에 미국의 신화종교학자 조셉 캠벨(Joseph Campbell, 1904-1987)의 말이 떠오른다. “아모르 파티(amor fati)”란 니체의 사상이 있다. 직역하자면 ‘네 운명을 사랑하라’이지만 실은 ‘네 삶을 사랑하라’는 말이다. 그의 말대로 네게 일어나는 단 한가지 일이라도 부정하면 이에 얽힌 모든 일이 풀려지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동화수용될 사정과 상황이 도전적이고 위협적일수록 너를 큰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네가 용납하는 귀신은 네게 그의 마력을 넘겨주고, 삶의 고통이 클수록 그 보람도 큰 법이다.

There is an important idea in Nietzsche of ‘amor fati,’ the ‘love of your fate,’ which is in fact your life. As he says, if you say no to a single factor in your life, you have unraveled the whole thing. Furthermore, the more challenging or threatening the situation or context to be assimilated and affirmed, the greater the stature of the person who can achieve it. The demon that you can swallow gives its power, and the greater life’s pain, the greater life’s reply.”

New Book

[신간 소개] 황두용 동문 ‘주기도’ 한글·영어 출간



황두용 동문(문리대 64, 사진)이 ‘주기도’(The Lord’s Prayer)를 한글과 영어 대역으로 출간했다. 모교에서 물리학, 버클리대학에서 철학, GTU에서 조직 신학을 전공한 황두용 목사(버지니아 힐튼 한인크리스천교회 담임)는 “책자에 실린 주기도는 물리학·철학·신학을 거쳐 성경으로 인도된 제 삶에서 나온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

“주기도/The Lord’s Prayer는 제가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한국에서 썼습니다. 한글과 영어를 대조하여 썼기에, 영어 부분을 교정해야 했습니다. 교정 과정을 거쳐 2016년 리오 올림픽 때 한국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주기도는 물리학, 철학, 신학을 거쳐 성경으로 인도된 제 삶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책에 담긴 것은 주기도를 풀이한 내용이기보다 주기도로

인도된 내용입니다.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주기도로 인도된 기도의 삶을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은 기도의 삶을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신 뜻은 구약에 나오는 언약의 전통에서 보아야 합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맺은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함께하시며 이루실 내용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율법은 사람이 지켜야 할 바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온전히 이루어지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사람이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율법으로는 순종하지 않고 단지 규정된 내용을 이행하는 것만 보일 수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지속하는 삶이 보이지 이루어지는 삶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로 한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길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삶을 삽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기도를 가르치신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삶을 율법이 아닌 기도로 보이셨

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기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언약의 삶의 기본인 것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그분의 백성은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길 기다림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됩니다.

주기도는 8 문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집약된 표현입니다. 따라서 풀어서기를 하게 되면 집약된 내용이 상실되게 됩니다. 집약되었는 것은 그 만큼 기도를 깊이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고려하여 저도 집약된 표현으로 일관하였습니다. 깊이로 묵상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묵상의 깊이만큼 기도도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믿는 이들은 주기도를 반복하며 암송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암송을 따라 묵상하도록 썼습니다. 그렇기에 쉽게 읽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깊이로 인도하는 내용으로 전개하였습니다.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으로 썼습니다.

이런 연유로 제가 물리학, 철학, 신학을 거쳐 주기도를 쓰도록 인도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깊이로 묵상하여도 잘

못된 내용으로 이끌지 않는다고 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보통 성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쓴 것은 깊이로 묵상하게 하기보다 이해한 내용으로 마음을 굳하게 합니다. 글쓴이의 이해에 따라 읽는 이를 이해시키니 마음이 이해한 대로 굳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읽어야 합니다. 이 책은 그러도록 전개되었습니다.

이 책을 한글과 영어로 대조하여 쓴 것은 이민 온 1세와 이곳에서 태어난 2세가 주기도로 삶이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핵심이 되는 주기도를 같이 암송하면서 그 내용이 주기도의 삶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이 글을 들려주고, 아이들은 묵상하며 성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연락처 (757)604- 2385



[독후감]



이장이라는 한 사생아의 일대기를 그린 장용학 씨 작 “圓形의 傳説”은 고교 시절 대학입시 공부를 하던 중 머리 좀 식히려고 우연히 펴다가 읽으면서 계속 빠져 들어가 결국 공부를 제쳐놓고 밤새도록 읽었던 책이다. 내용을 모두 소개하기는 지면이 모자라므로 뼈대만 소개한다.

서울에 사는 이도무라는 사람의 아들 이장은 어려서부터 자신의 부모가 친부모가 아니라는 느낌을 갖게되고 결국 육이오 때 반동으로 몰려 총에 맞아 죽는 아버지에 게서 함경도의 방골이란 마을에 가면 너의 생가가 있다 는 말을 듣고 그곳을 찾아가 자기 생모의 무덤을 찾아낸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를 겁탈하여 아이를 낳게 한 사람이 어머니의 친오빠인 오택부란 사람이며 그 사람이 현재 남한에서 국회의원으로 있음을 알고서 간첩으로 남파되어 복수를 한다는 이야기다.

이 圓形의 傳説를 펴할 때 어떤 이는 근친상간이라는 말초적인 주제에만 매달려 호들갑을 떨기도 하고 어떤 이는 마치 정신분석을 하듯 하는 잡설을 늘어놓기도 하는데, 그림이나 음악이나 문학작품 등의 예술작품을 감상할 때는 부분 부분을 잘라서 하나 하나 의미를 붙이려 하지 말고, 전체로 판단하여 “작가가 말하려 하는 것”을 찾는 관점에서 보아야 하지않을까 한다. 여기서 주인공인 이장이라는 사람의 고민은 자신이 인간의 대열에 끼기가 어렵다는 데 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생물학적으로는 남과 전혀 다를 바 없지만, 사회적인 면에서 볼 때 남과 너무도 다른 상황에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남이라면 겪지 않을 충격적

인 상황을 많이 만나게 되고 그것을 통해 남들은 생각지도 않고 생각할 필요도 느끼지 않을 인간의 여러가지 모습과 지저분한 면을 놓고 고민을 해야 하는데 있다.

또 작가는 소설의 군데 군데에 이장이 잠이 들어 꾸는 꿈이나 혼수상태에서 보는 환상을 통해 인간의 역사라는 것은 인간이 집단적인 생존과 지배자들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도덕이나 종교등의 것



[문화]

굴뚝 청소부의 선물 (Gift of Mr. Gift, a Chimney Sweeper)



김봉전 (공대 68)

해마다 겨울이 깊어 가는 12월이 되면 잊지 못할 추억이 있다.

거의 30년 전 어느 오후,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굴뚝 청소차가 보여서 아직 작업이 안 끝났나 하며 현관문을 여는데 피아노 음악이 크게 들렸다.

이것은 라디오나 전축이 아니고 피아노 연주인데, 이상하다고 느꼈다. 당시 우리 피아노는 100년 묵은 것으로 음향판(resonance board)에 금이 가서, 연주를 하면 파열음이 들렸다. 그런데 어떻게 이리 좋은 피아노 소리가 나올까? 궁금했다.

거실에서는 상상치 못한 일이 보이고 있었다. 검은 모자, 검은 양복 정장에 검댕이 얼굴과 손에 묻은 옛 영국 전통형의 굴뚝청소부가, 그것도 콘서트 피아니스트

들도 힘들다고 하는,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을, 악보도 없이 거장처럼 연주하고 있었다.

놀라움과 흥분을 다스리며, 펼쳐지는 아름다운 피아노 연주를 가쪽들과 즐겼다.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그는 이름이 Robert Gift로, 미국 최고의 음대 명문, 인디애나 주립대에서 오르간을 전공했고, 연주 생활하며 틈나는대로 친구가 운영 하는 굴뚝청소부 일로 생활비를 보충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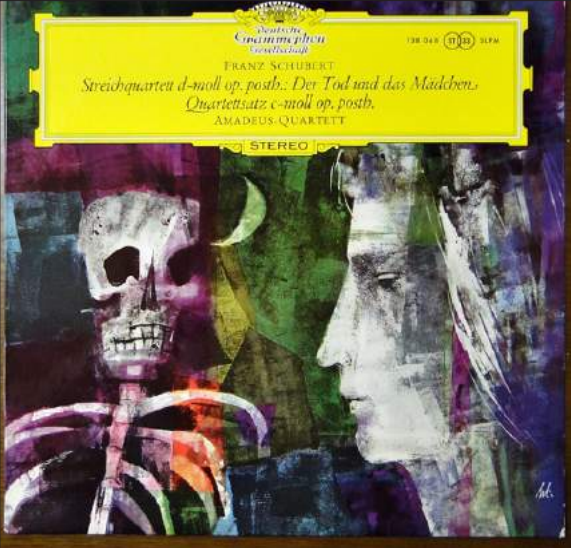
그는 덴버시청의 시계탑 꼭대기에 설치된 사람들에게 잊혀져가는 음악종을 우연히 발견하여 손수 컨디션닝을 해서, 한 옥타브를 커버하는 12개의 음악종으로, 매년 성탄 연휴 3주 동안 캐롤 연주를 해 사람들과 성탄의 기쁨을 나누곤 했다. Denver Post에 몇 번 기사가 나왔는데, 근래 소식은 잘 모르겠다. 그의 음악에의 꿈과 열정이 꽃 피었기를 바라며, 그 때의 음악을 다시 한번 듣는다.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은 youtube에 작곡가 자신을 포함한 많은 연주가의 음악을 선택할 수 있다. 여기서는 최근 유튜브를 통해 떠오르는 박력있는 Valentina Lisitsa의 교향악단 없는 피아노 독주를 소개한다. <https://youtu.be/ufb2TrR3UAo>

참고로 피아노의 음향판은 피아노 현의 아래 (grand piano) 또는 뒤에 (upright piano)에서 피아노 현의 타격 소리를 공명 증폭하는 기능으로, 넓고 두께가 얇은 나무판으로, 오래 되면 건조해지고 수축되면서 깨진다(cra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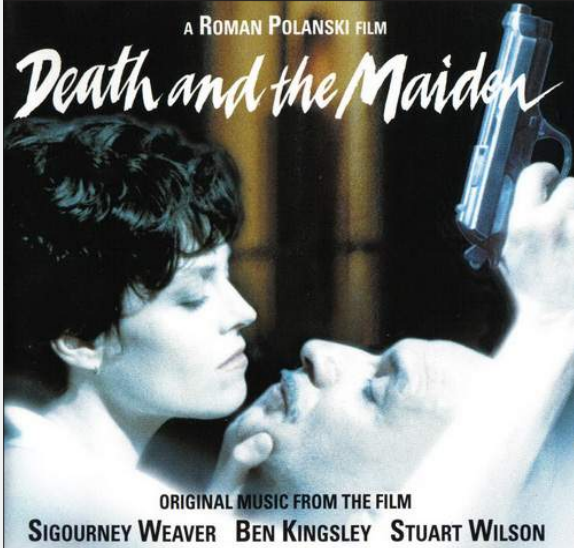
피아노 근방에 가슴기를 가동하는 이유다. Gift씨는 깨진 나무음향판 틈바구니를 큰 스폰지로 때우어 파열음이 없게 회복한 것이다.





이 앨범은 한글과 영어로 대조하여 쓴 것은 이민 온 1세와 이곳에서 태어난 2세가 주기도로 삶이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핵심이 되는 주기도를 같이 암송하면서 그 내용이 주기도의 삶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이 글을 들려주고, 아이들은 묵상하며 성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연락처 (757)604- 2385



이 앨범은 한글과 영어로 대조하여 쓴 것은 이민 온 1세와 이곳에서 태어난 2세가 주기도로 삶이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핵심이 되는 주기도를 같이 암송하면서 그 내용이 주기도의 삶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이 글을 들려주고, 아이들은 묵상하며 성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연락처 (757)604- 2385





정유석(의대 58)

오스트리아의 작곡가 프란츠 슈베르트는 1817년 독일 시인 마티아스 클라우이우스의 시를 가사로 하여 ‘죽음과 소녀’(Der Tod und das Mädchen)를 작곡했다. 가사 내용은 소녀와 죽음 사이에 나누는 대화다.

“(소녀) 지나가요! 오, 지나가세요!/ 가세요. 뼈만 남은 무서운 분!/ 나는 아직도 절단 말이에요! 가세요./내게 손을 대지 말고/ 내게 손을 대지 말고.

(죽음) 내게 손을 주렴, 너 아름답고 부드러운 몸!/나는 네 친구/너를 발을 주러 오지 않았다./기분을 내렴./ 나는 무섭지 않다./ 너는 부드럽게 잠을 잘 것이다./ 내 품안에서.”

1824년 삼기 매독이란 진단을 받고 죽음을 눈앞에 둔 슈베르트는 이미 작곡된 ‘죽음과 소녀’라는 가곡을 이용하여 현악사중주곡(String Quartet No.14 in D-minor)으로 만들었다. 삼기 매독이란 매독균이 두뇌까지 침범했음을 말한다. 그래서 그는 병원에 입원까지 했었다. 당시 매독 말고도 그의 삶에 비참했다. 악보 출판사가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돈이 없어

서 생활은 극히 곤궁했고 모처럼 시도했던 오페라(중세기를 배경으로 한 ‘Fierabras’)는 공연에 실패했다. 그는 심한 우울증에 빠졌다. 한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 “건강이 회복되지 않은 남자를 생각해보세요. 절망은 사태를 완화시키는 대신 악화시키지요. 가장 밝은 희망을 지녔던 인간에게 아무 것도 남지 않았고 사랑과 우정을 지닌 자에게 고통만 돌아옵니다. 아름다움에 대한 정열은 빨리 소멸되어버리니 그는 정말 불행한 인간이 아닐까요.”라고 적었다.

이 현악 사중주곡의 제2악장에 가곡의 멜로디가 나온 다음 그 변주곡이 계속되기 때문에 ‘죽음과 소녀’란 이름이 붙었다. 그러나 죽음이란 주제는 4개 악장에서 모두 느낄 수 있다.

1994년 로만 폴란스키 감독은 원래 연극이었던 것을 각색한 ‘죽음과 소녀’란 미스터리 영화를 제작했다. 시고니 위버, 벤 킹슬리, 스튜어트 윌슨 같은 쟁쟁한 배우들이 등장했다. 금방 독재체제를 벗어난 남미의 한 나라를 배경으로 고문의 후유증을 다루고 있다.

폴란스키 감독은 주로 할리우드에서 작

품 활동을 하다가 1970년대 말 13세 소녀와 간통을 한 뒤 재판을 받던 도중 유럽으로 도망해서 체포영장을 받고 아직까지도 미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유럽에서 만들어졌다. 한때 시린 운동가였으나 지금은 한 변호사의 아내로 가정주부가 된 폴리나(위버)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정전 상태에서 폴리나(위버)는 절벽 위에 있는 집 안에서 초조한 가운데 서성거린다. 남편(윌슨)은 폭우로 난처해진 이웃을 돕기 위해 낮선 남자, 미란다 박사(킹슬리)를 차에 태우고 집에 돌아온다.

이 음악의 연주가 시작되자 폴리나와 미란다 박사의 눈이 서로 마주치면서 영화는 암전된다. 어느 나라라고 영화에 나오지는 않지만 군사독재시절 남미의 칠레임을 암시한다. 오스트리아의 상징과 운동을 주동한 화가 에곤 쉐레(Egon Schiele)는 한동안 17세인 윌리 노이치이란 젊은 여인과 동거했다. 그녀는 한때 화가 클림트(Klimt)의 모델이었고 애인이었다. 그녀는 쉐레를 위해 집안일을 도맡아 돌보며 모델 역할도 했다. 누드 상태로 야한 포즈를 취하라는 요구까지 들어주면서,

그런데 쉐레는 1914년 비엔나 교외의 스튜디오에서 길 건너편에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에디트란 젊은 여자를 만났다. 그녀는 중산층에 속한 개신교도였다. 자신은 유대인이어서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던 쉐레는 다음 해 그녀와 결혼해 신분상승을 꾀했다. 그러면서도 윌리와 관계는 계속되길 원했다. 그러나 그의 설명을 들은 윌리는 즉시 떠나 다시는 그를 보지 않았다. 당시의 심정을 이 화가는 ‘죽음과 소녀’(1915)란 그림으로 표현했다. 흰 시트위에 두 남녀가 필사적으로 겨안고 있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구도다. 관계의 종말로 인해 공허한 슬픔이 감돈다. 여인은 아주 마르고 길어진 손으로 남자를 잡는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는 쉐레 자신이 기도 하며 죽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관계의 종말로 인해 공허한 슬픔이 감돈다고는 그림이다.

The Death and Maiden

이 현악 사중주곡의 제2악장에 가곡의 멜로디가 나온 다음 그 변주곡이 계속되기 때문에 ‘죽음과 소녀’란 이름이 붙었다. 그러나 죽음이란 주제는 4개 악장에서 모두 느낄 수 있다.

1994년 로만 폴란스키 감독은 원래 연극이었던 것을 각색한 ‘죽음과 소녀’란 미스터리 영화를 제작했다. 시고니 위버, 벤 킹슬리, 스튜어트 윌슨 같은 쟁쟁한 배우들이 등장했다. 금방 독재체제를 벗어난 남미의 한 나라를 배경으로 고문의 후유증을 다루고 있다.

폴란스키 감독은 주로 할리우드에서 작

그는 유쾌하고 불임성이 있지만 폴리나는 그의 목소리만 듣고도 그가 파시스트 정권의 일원으로 자기의 눈을 가린 채 몇 주일동안 고문을 하고 강간한 인간임을 알아차린다. 그녀는 미란다 박사를 구금한 후 사실을 밝히려 한다. 폴리나는 심리적 억압과 음울한 기억 사이에서 고통을 받으며 남편은 아내와 법 사이에서 고민한다. 한편 미란다 박사는 부부가 확실하지 않은 과거를 들춰내려고 할 때 구속되어 고통을 견뎌야 한다.

폴리나가 고문을 받는 장면에서 현악사중주곡 ‘죽음과 소녀’가 배경음악으로 나온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한 음악회에서

‘유순’의 거리... ‘겁’의 시간을 찾아서



김지영(사대 69)

“신 소방네 소가 뛰었다.”

내가 가장 어린 나이에 들은 사건 뉴스이다. 다섯 살 무렵이었다. 새참 ‘광우리’를 이고 눈으로 가시는 외할머니를 졸졸 따라갔다. 뽕 모를 다시 심던 외할아버지가 눈두렁으로 나오면서 하시는 말씀이었다.

소가 뛰는 광경 ...상상이었지만... 그 장면이 60년이 지난 지금도 요지경 속의 색동 조각처럼 현란하고 선명하게 기억 속에서 튀어나온다. 커다란 눈망울에 겁을 잔뜩 먹고 뜨거운 콧김을 뿜으면서 엿박자 네 발로 달린다. 일단 뛰기 시작했는데 어디로 갈지 몰라 당황하는 모습. 제발 “날 좀 잡아주세요”하는 불쌍한 외침이 들린다.

덜컾는 커도 천천히 걷는 게 소다. 이른 봄 다랭이 논에서 쓰레질을 하는 소걸음, 세상에 아직 “바쁘다”란 단어가 생겨나기

이전의 행보이다. 그런 소가 실제로 뛰는 일은 아주 드물다. 서부 영화에서 들소나 농장의 소 때들이 집단으로 뛰는 장면이 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거의 가족 대접을 받는 농사꾼들의 소는 언제나 묵묵히 소 걸음을 걸을 따름이다.

그래서 고대 인도 사람들은 한결같은 소 걸음으로 거리를 가능한다. 땅에를 멘 소 두 마리가 함께 하나의 달구지를 끌고 하루를 걷는 거리, 그것을 한 ‘유순’(由旬, yojana)’이라고 한다. 지금의 셈법으로 하면 약 8마일, 13킬로미터 정도.

소 걸음은 시간 측정의 한 요소가 되기도 한다. 가로, 세로, 높이가 한 유순인 바위가 있다고 하자. 그 바위에 100년에 한번씩 비단옷을 입은 선녀가 내려온다. 그 옷깃에 스쳐 바위가 닳는다. 그렇게 바위가 다 닳아 없어지는 시간, 그것을 겁(劫, kalpa)이라고 한다.

내가 어릴 때 보았던 소는 사람 걸음같이 매 맞추어 걸었다. 어린 애가 소를 몰고 가면 어린이가 보폭에 맞추어 가고 장정 앞에서 걸어가면 어른 발자국에 맞추어 걸

는다. 코뚜레에 매어놓은 고삐에 매인 몸이라서 그럴까? 아니다. 소를 앞 세워 걸으며 사람이 고삐를 조이는 일은 별로 없다. 소는 뒤 따라 오는 사람의 보폭과 리듬을 잘 알고 있다.

세월이 지나고, 사람들의 생활도 바빠졌다. 사람이 뛰고, 소도 뛰고. 워낙 소리 째랑대던 그 시대의 거리와 시간 감각은 엉켜져 버렸다. 이 시대의 속도감에 적응을 못하는 사람들은 뒤로 처진다. 같이 걸어 줄 소도 사라져 버린 후미진 구석으로.



말도 소를 따라 죽는다. ‘다랭이’ ‘논 두렁’ ‘뽕 모’ 이런 단어들이 한지에 먹물 스며들 듯 머리 속에 콕콕 들어오던 시절, 그때 저장했던 한가로운 단어들... 새참(끼니 사이의 간식), 광우리(광주리), 새뱅이(새우), 깨구락지(개구리), 토갱이(토끼), 멍에, 쓰레질... 지금도 내 의식의 밑바닥을 훑으면 개울가 새뱅이처럼 걸려 나온다. 그런데 막상 고향 마을에 가보면 다 없다. 사람들만 뿔박질한다. 소가 있다면 사람들 리듬에 맞추어 뛰어야 할 터이다.

한 유순의 길이가 늘어난다. 한 겁이 품는 겁나는 시간도 길어진다. 사건이다. 내 기억 속의 소는 뛰고 싶어 하지 않는다.

판도라, 인류 불행과 희망의 상징

인류 최초의 여성 판도라의 탄생



이선화(미대 83)

자를 만들게 하여 남자들이 하여금 더없이 큰 능력인 지혜를 못쓰게 하려는 거였다.

성서의 이브와 마찬가지로 그리스 신화에서도 여성은 인류를 불행하게 만든 존재로 나온다. 이렇게 해서 인간 최초의 여성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 여성에게 헤파이스토스가 자신의 손재주로 아름다운 여성의 몸과 생명을 주었고 직물의 여신이기도 한 아테나는 아름다운 옷감을, 사랑과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는 거부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달변의 신 헤르메스는 설득할 수 있는 언변술을, 제우스는 선물상자를 주었다. 이리하여 이 여성은 온갖 선물을 받았다는 의미를 가진 ‘판도라’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Pandora는 Pan(모든)+ dora(선물) 즉 ‘모든 선물을 받은 여인’이라는 뜻이다. 제우스의 메신저이며 전령신인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명령대로 판도라를 프로메테우스의 동생 에피메테우스의 결혼으로 데려갔다. 에피메테우스는 ‘나중에 생각하는 사람(Afterthought)’이라는 뜻이다.

프로메테우스는 동생 에피메테우스를 위해 절대로 제우스로부터 선물을 받지 말라고 충고하지만 나중에 생



각하는 사람인(!) 에피메테우스는 형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최초의 인간여성 판도라에게 반해 아내로 삼는다.

판도라는 에피메테우스의 아내가 되어 지상에서 살게 되었다. 에피메테우스의 집에는 열여섯 마리 말과 한 제

깜짝 놀란 판도라는 재빨리 뚜껑을 닫았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제우스가 준 선물상자는 재앙의 상자였던 것이다. 그때까지 지상의 인간들은 죽음을 부르는 병과 슬픔, 재난 등을 모르고 살았지만 이때부터 지상에 ‘악’과 ‘재난’이 생겨났고 인류의 증가와 더불어 점점 더 퍼졌다.

하지만 마지막 ‘희망’만은 항아리 밑바닥에 남아 있었다. 이로 인해 인간은 갖가지 불행과 고통속에 항상 재난을 두려워하며 마지막으로 남은 희망만을 안고 살아 가게 되었다고 한다. 여기서도 희망은 희망이라는 재앙으로 이야기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희망이 오히려 화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과대망상으로 생각될 수 있고 오히려 헛된 희망이 미래를 다스릴 수 있다는 위험한 발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판도라(Pandora)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최초의 여성으로, 재앙을 몰고 온 의미이며 절대 열여섯 마리 말과 한 판도라의 상자는 인류의 불행과 희망의 시작을 나타내는 상징이다.

500 단어(글자수 2000자) 내의 글과 필자 사진 한장(고화질)을 보내주세요. 앨범 사진을 스캔하든가, 셀폰(고화질)으로 찍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달의 사진’도 간단한 설명과 함께 보내주세요. 모든 원고와 사진은 news@snuaa.org 로 보내주시고 동창회에 대한 질문이나, 주소정정, 회비/후원금 등의 사무적인 일은 general@snuaa.org 로 보내주세요. <편집위원회>

We have just finished 9 day “Tour du Mont Blanc” hiking.

It was 140km circuit trail course starting in Chamonix, France and ending also in Chamonix completely circling Mont Blanc encompassing 3 countries (France, Italy, Switzerland).

This is one of the most beautiful hiking courses in the world. The hiking was strenuous due to stiff ascent into soaring mountain tops and equally hard plunging descent to deep valleys and long arduous walks. Among 13 hikers of our group all

from the United States only my wife Sharon and me were over seventy years of age (73&74). It was apparent from the start that we didn’t belong to these mountains. But somehow we managed to complete this hiking.

The Sun was hot and there was little breeze most of days. I was sweating heavily and was soaked like a dog in a bath tub. Sharon was legitimately concerned with all my body water being lost by this terrible sweating. She urged me to drink water at every little stops. She was at my heels throughout the hike. But I was not leading her, in stead she was guarding me from the behind because she is stronger hiker between us.

In our lifetime, we did 5 or 6 world famous trekkings including Torres Del Paine in Patagonia, Inca Trail in Peru, Annapurna and Everest tracks in Himalaya, Millennial climb of Mt. Kilimanjaro but Tour du Mont Blanc tops them all in natural beauty. The scenery of majestic snow capped massif of Mont Blanc, beautiful alpine meadows, the sound of cow bells, blankets of wild flowers and hundreds years



이은중(음대 91)

대금(大笥)은 저, 쪼대라고도 하는 한국전통음악에서 대표적인 관악기이다.

굵고 긴 대나무에 구멍을 뚫어 입김을 넣는데 이것이 공명이 되어 소리가 난다.

대금을 가로로 놓고 보았을 때 맨 왼쪽부터 입김을 불어 넣는 취구, 청을 붙이는 청공, 손가락으로 막았다 떼어 소리의 높 낮이를 조절하게 하는 6개의 지공, 마지막으로 대금을 만들때 음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칠성공이 있다.

특히 청공은 대금을 여는 관악기와 다르게 하는 것으로, 이 청공에 갈대의 속 겹질로 만든 ‘청’을 붙여 다른 악기들이 흥내낼 수 없는 대금만의 독특한 울림을 만들어 낸다. 청의 울림은 다이내믹, 음색감의 변화와 관련이 있으며, 대금의 유연하면서도 장쾌한 음색에 더욱 강한 호소력과 흥을 주는 역할을 한다.



몽블랑 트래킹

old small alpine villages at the foothills of mountains. Wherever you turned your eyes to there were mesmerizing sceneries. The conditions of trails were well maintained, but not without danger, sometimes some parts of trails were across the cliff and sometimes hikers had to hold on metal ropes and one time we climbed a metal ladder attached to the rock. The level of danger increase especially in early season(June) when the snow or ice still remains in the trail, or at any time when rainy weather makes the trails more slippery. To be able to hike these trails you better be a superman and spider-man, so to speak.

But when we need help our two guides(Eric & Tina) were always standing right by us. One of memorable moment of this hike was hiking up the Roman road. It was fairly wide road in the beginning and gradually became narrower toward the top and must be used to trade goods between the countries of the north of Alps and Roman Empire. At the trail head there was an old chapel for Pilgrims which was built in 11th century. This tells us this was a popular road to Rome bound Christian Pilgrims too. Sharon loved

utes because they were coming and we were going. To do Tour du Mont Blanc you need help from tour outfitters. This is ‘Inn to Inn’ hike and every day your luggage are being transported by tour outfitters to the next inn. It has been 3 weeks since the hike but I still hear the sound of cow bells ringing my ears.

추신: 이번 몽블랑 등산을 다녀와서 쓴 travel essay 입니다. Tour du Mont Blanc 은 140km의 (한국 고유 거리로는 3백5십리) 몽블랑 주위를 한바퀴 완전히 도는 등산입니다. 등산코스에 프랑스(4일), 이태리(1일), 스위스(2일) 포함되고 전체기간은 9일이 걸립니다. 짐들은 등산회사에서 여관에서 여관으로 옮겨주지만 물, 점심, 비상약품등은 자기 백팩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이 글은 에세이라기 보다 동문들에게 몽블랑 등산을 소개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우리의 등산회사는 “Boundless Journeys”(인터넛참조)였고 모두 13명이 등산을 같이 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존칭을 쓰지않고 오래된 친구처럼 first name만 사용하였습니다. 그룹여행의 분위기로도 더 이상 바랄 수 없도록 좋았지요.

김영(수의대 63)

대금

대금은 중금·소금과 더불어 신라 삼죽(三竹) 중 하나로 통일신라시대부터 있던 관악기라고 전하여 진다. 특히 『삼국유사』에 신라 31대 신문왕 시절에 동해에서 난 대나무로 대금을 만들어 부니 적병이 물러나고, 물결이



산조 대금



정악 대금



가라앉고, 질병과 가뭄이 그치므로 만파식적(萬波息笛)이라 불렀다고 한다는 대금에 관한 설화가 있다. 하지만 현재는 통일신라의 삼죽(三竹)은 신라 이전 고구려와 백제의 황적을 수용하여 발전시킨 악기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다른 문헌들에 의해 밝혀지고 있다.

대금은 가로로 부는 악기로 연주자가 왼쪽 어깨에 얹어서 연주한다. 연주자가 취구에 김을 넣는 정도에 따라서 저취·평취·역취로 구분되어 두 옥타브와 완전5도의 넓은 음역의 소리를 낸다. 대나무의 신비롭고 부드러운 소리와 역취에서의 장쾌하고 맑은 소리, 청공에서 얹은 청이 만들어내는 청울림은 그야말로 신금을 울리기에 충분하다.

대금에는 정악대금과 산조대금이 있는데, 정악대금은 글자 그대로 궁중음악과 정악에 사용되고 산조대금은 대금 산조나 시나위, 민속무용 반주 등에 사용된다. 여러 악기들과 합주를 할 때 대금은 시작 전 음정을 내서 다른 악기들이 그 음정에 조율을 하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미주동창회의 설립 목적중의 하나인 나눔과 봉사를, 풍부한 자원을 가진 동창회를 통하여 조직적이고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새로 조직되는 ‘나눔위원회’에 위원(director)으로 참여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동창회 사무국 general@snuaa.org 로 자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주동창회 사회봉사 담당 부회장 황선희(공대74)



[영화]
2009년 1월 15일 뉴욕 허드슨 강에 US 항공기 1549편이 불 시작해 탑승객 전원 155명이 구조되는 기적에 온 세계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 비행기의 기장이었던 Chesley “Sully” Sullenberger는 뉴욕 라가디아(La-Guardia) 공항을 이륙하여 살롯데 더글러스 국제공항을 향해 비행하려고 고도를 높이고 있었다.

얼마 안 되어 캐나다 거위 떼들이 비행기를 향해 돌진해 엔진으로 빨려들면서 엔진에 불이 나 엔진이 멈춰 버렸다. 이륙한 공항으로 되돌아갈 것인가 혹은 가장 가까운 공항 테터보로(Teterboro) 공항에 착륙할 것인가 고민하지만, 고도가 너무 낮아 도저히 갈 수 없었다.

기장이 아무리 생각해도 허드슨 강에 비상착수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비행기가 이륙해서 비상착수할 때까지 3분 28초가 걸렸고 탑승객 전원이 24분 만에 구조될 수 있었다. 탑승객 전원을 비행기 날개 위에 혹은 비상 구명보트에 다 내릴 때까지 끝까지 비행기 안에 남아 진두 지휘하고 맨 마지막에 비행기에서 내렸던 책임감이 투철했던 Sully 기장이었다.

나는 이 영화를 보면서 세월호 선장과 기관장이 생각났다. 승선한 학생들과 승객들을 버려두고 혼자 살겠다고 도망쳤던 무책임하고 비정했던 그들을 보고 비

「설리」를 보며 만감이 교차

통해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Sully 기장과 너무나 대조적인 인물들이었다.

또한 2001년 9월 11일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을 향해 탑승객을 태운 비행기 납치범이 돌진 공격하여 탑승객을 비롯해 건물 안에 있던 거의 모든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Sully 기장은 사람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 했지만 세월호 선장이나 무역센터를 공격하여 무너뜨린 오사마 빈 라덴은 사람을 죽이는 데 앞장서 최악을 다한 사람들이었다.

그 당시 허드슨 강의 기적을 뉴스를 통해 보면서 나는 한편으로는 무척이나 가슴을 졸이고 다른 한 편으로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딸이 노스웨스트 항공사 승무원 생활을 그만둔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생각했다. 9.11 테러로 수많은 사람이 귀한 생명을 잃었을 때 나의 놀라움은 극에 달했었다.



딸이 타고 다녔던 항공기가 혹시 사고를 당했는지 모른다는 생각에 안절부절못했지만 비행기 기종이 밝혀지면서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만 했다. 9.11 테러 공격 후 딸에게 항공사 승무원 생활을 그만두라고 간곡히 얘기했을 때 처음에는 완강히 반대했지만 결국 엄마 말에 순종하여 그만 두게 되었다.

봉사 정신이 몸에 밴 딸은 결혼 후 데이비스 시에서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다. 같은 쇼핑몰 안에 스타벅스 커피숍이 들어오게 되자 경쟁이 붙게 되었다. 어느 날 갑자기 쇼핑몰 주인이 10일 안으로 가게를 비워 달라는 통지를 보내왔다. 딸네 가족은 영문도 모른 채 10일 만에 문을 닫고 가게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심수 년 동안 단골 손님들이 이 사실을 알고 배후에는 스타벅스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대적으로 불의와 불법 처사에 항거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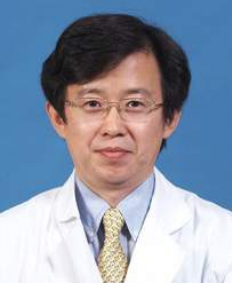
지방 라디오 TV 방송국 신문사 인터넷에서 쇼핑몰 주인의 부당하고 불법적이 되거명령을 고발하기 시작했다. 주 정부 하원의원을 비롯해 유시 데이비스 대학교 교수들과 학생들과 고객을 포함해 모두 628명이 탄원서를 작성하여 쇼핑몰 주인을 만나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사면초가에 몰리고 진퇴양난에 처했던 쇼핑몰 주인은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말았다.

주인은 더 좋은 장소로 가게를 내어 주고 돈까지 \$55,000을 주면서 가게를 리모델링 하라며 호의를 베풀었다. 위기의 순간이 절호의 기회로 전화위복이 되어 다시 가게를 열게 되어 번창일로에 있다. 민심이 천심이었다. 고객들이 승리의 환호성을 외치며 몰려 와 가게 벽에다 벽화 그림을 기념으로 그려 주었다. 고객들은 이름을 하나하나 써서 종이학을 만들어 자전거 두 바퀴에다 실로 매달아 천정 2곳에다 달아 두었다. 나는 그것을 쳐다 볼 때마다 감격하여 눈물이 뿔뿔 쏟아 난다.

고객은 왕이라고 늘 생각했던 사위와 딸이 고객들을 잘 대접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자선기금을 내고 지역사회 행사 때마다 무료 커피를 제공하고 늘 봉사하는 일에 앞장섰던 까닭에 이루어 낸 쾌거라고 생각한다.

허드슨 강에 불시착한 비행기 안에 딸이 승무원으로 있었다면 분명히 손님들을 끝까지 보살피고 모두 비행기에서 무사히 밖으로 내 보낸 후에 기장과 함께 비행기에서 마지막으로 나왔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건강] 분당서울대병원, ‘망막내층 불규칙 지수’ 세계 최초 개발



박규형(의대 92졸, 사진)분당서울대병원 안과 교수·조관혁 임상강사 연구팀은 빛간섭단층촬영을 통해 망막내층의 불규칙한 변형의 정도를 수치화한 '망막내층 불규칙 지수'를 개발해 망막내층의 손상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고 지난 9월 12일 밝혔다.

빛이 눈으로 들어오면 안구의 가장 안쪽을 덮고 있는 망막에 초점이 맺히게 된다. 망막에서 빛에 대한 전기적 정보가 전환돼 시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되어야만 사물을 볼 수 있다.

망막전막증은 이러한 망막 앞 표면에 원래 존재하지 않던 또 다른 막인 섬유성 조직이 증식해 국극적으로 망막조직을 손상시키는 질환을 의미한다. 망막전막증이 발생하면 시력이 저하되고 사물이 이중으로 겹쳐 보이거나 일그러져 보이는 변형시가 발생해 불편을 겪게 된다.

기존에는 망막전막증에서 일차적으로 생기는 망막내층의 불규칙한 변형이 질병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었지만 기술력의 한계로 불규칙 정도를 측정하기 어려웠다. 또 기존의 검사기기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는 불규칙해지는 망막내층의 손상 정도를 파악할 수 없었다.

이에 연구팀은 2013~2014년 기간 동안 분당서울대병원 안과에서 망막전막 수술을 받은 환자 108명을 대상

으로 수술 전과 수술 후의 시력 및 변형시를 측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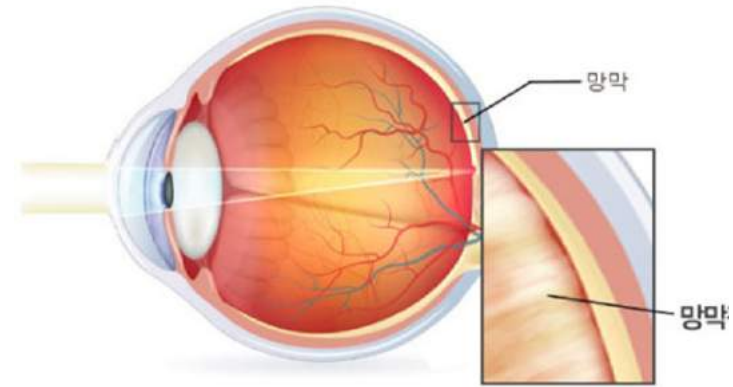
그리고 기존에 알려져 있던 시력예후인자인 중심망막두께, 망막내층두께, 망막외층결손이 시력예후를 반영·예측하는 정도와 망막내층 불규칙 지수가 시력예후를 반영·예측하는 정도를 비교 분석했다.

망막내층 불규칙 지수는 망막내층의 길이와 망막전막으로 인해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망막색소상피층의 길이로 나눈으로써 계산했다. 연구결과 중심망막두께 및 망막내층두께는 시력예후를 예측하는 데에 연관성이 부족했고, 모든 망막전막환자들의 망막두께가 두꺼워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망막외층결손 역시 40% 정도의 환자에서만 나타났기 때문에 나머지 60% 환자에서는 이를 지표로 시력예후를 예측하거나 수술을 결정할 수 없다는 단점이 확인됐다.

하지만 새롭게 고안된 망막내층 불규칙 지수는 시력예후와 상당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술 전 및 수술 후 1개월, 3개월, 6개월 까지 모든 시점에서 시력 및 변형시와 일치했고, 수술 전 측정된 불규칙 지수를 통해 최종 시력예후까지 예측해 볼 수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무엇보다도 망막전막 환자 모두에서 적용이 가능하다는게 장점이라고 연구팀은 전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연구를 통해 개발된 망막내층의 불규칙 지수를 망막전막의 진단에 이용하면, 질환의 진행 경과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고 수술 전에 최종 시력 및 변형시 정도를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연구팀은 예상했다.

박규형 교수는 “과거 사용된 지표 대부분은 질환이 어느 정도 경과한 뒤에 나타나기 때문에 질병의 경과를 조기에 예측하고 수술 시기를 결정하는데 제한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에 개발한 망막내층 불규칙 지수는 망막전막 질환의 초기부터 측정이 가능하고, 또 수술 후에도 회복 기간에 따른 측정이 가능하여 회복 수준 및 재발 여부를 쉽고 빠르게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미국의 대표적인 안과학술지인 '미국안과학회지(American journal of ophthalmology)'에 게재됐으며, 10월에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미국안과학회2016 국제 학술대회에서도 발표되었다. <뉴스시스>



이곳은 Yuma, Arizona, Cholla Cactus 군락지입니다. 평평한 사막, 기묘한 바위 산 밀이지만 들어가는 길이 험해서 4x4가 꼭 있어야 합니다. 비포장 모래길, 깊이 파인 냇물을 건너야 하니깐요. 이 선인장은 Cholla Cactus 하는데 보기에는 복식복식 귀여워 보이지만 날카로운 가시가 한번 박히면 절대로 빠지지 않고 등산화 바닥에도 팍팍 박히는 선인장입니다. 일명 jumping cactus 라고도 합니다. 이름이 말해 주듯 옆에 가면 어느새 몸에, 가방에 들러 붙어 버립니다. 혹시라도 절대로 어린 아이들은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눈이 가는 지평선 끝까지 펼쳐진 선인장 발냄어 가는 해는 선인장 가시마다 잡혀있는데 말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는 장관이었습니다. 이 사진이 그래서 'Light Catcher'란 제목을 갖게 되었습니다.

노현숙 (Suzy Ro, 부군: 노명호(공대 61))

[문화산책]



김창수 (약대 64)

마티니(Martini)와 맨해튼(Manhattan) 다음으로 많이 찾는 칵테일이 '올드패션드'다.

올드패션드(Old Fashioned)의 처방은 위스키(라이 또는 버번 위스키) 2온스, 설탕 1 티스푼(또는 각설탕 1개), 비터스(Bitters) 한두 방울, 탄산수 소량, 얼음 2~3개, 레몬 조각 1개, 체리 1개이다.

올드패션드 전용 잔이 있는데, 물 마시는데 사용하는 텀블러(Tumbler)잔의 절반 정도의 사이즈다.

칵테일 상식 - 시리즈 #7



올드패션드를 만들 때 주의할 것은 설탕을 완전히 용해시키는 것이다. 글라스에 설탕을 먼저 넣고, 비터스(Bitters) 한두 방울을 떨어뜨린 뒤, 탄산수 약간을 추가하면서 저어서 설탕을 완전히 녹여야 한다. 그 위에 얼음에 넣고 위스키를 부은 뒤, 레몬 조각과 체리 한 개를 넣으면, 올드패션드가 된다.

설탕을 완전히 녹이고 제대로 올드패션드를 만들자면 15분 내지 20 분이 걸리므로, 그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설탕 대신 슈거 시럽을 사용하기도 한다.

위스키는 원칙적으로 라이 위스키 또는 버번이지만, 스카치를 사용해도 된다.

위스키 대신 진, 브랜디, 럼 또는 서던 컴퍼트(Southern Comfort)를 사용해도 무방하나, 이때는 그냥 올드패션드가 아니고 그 앞에 대신한 술의 이름을 붙인다.

진이나 럼을 위스키 대신에 쓸 때는 흔히 쓰는 앙고스트라(Angostura) 비터스 대신에 오렌지 비터스를 사용해도 좋다. 올드 패션드에 오렌지 맛이 나는 코앵트로(Cointreau: 복소는 신 맛과 달콤한 리큐르 과일주의 일종) 또는 샤르트뢰즈(Chartrreuse: 강한 단맛에 약간 매운 맛과 특소는 맛이 나는 리큐르 과일주의 일종) 몇 방울을 떨어뜨려서 맛에 변화를 시도하는 사람도 있다.

<CPA, 경영대학원 68, 논설위원>

편집후기

어느덧 12월호를 내 놓습니다. 금년의 10대 뉴스, 이런길 뿔아볼만큼 미주동창회에 행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한달 한달 회보를 내다 보니 2016년 마지막 호가 되었네요.

몇달씩 밀려있는 기사들도 다 소화하지 못했는데, 귀한 글을 보내주시는 동문님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안고 해를 넘깁니다. 아직 결음마도 폐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번 필라델피아 회기에서 나눔위원회를 시작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회보가 좀더 적극적으로 나가야하는데 아쉽습니다.

작금의 한국사태에 대한 동문님들의 고견과 논설을 기대했는데, 다들 할 말들은 많을텐데, 표현을 안하시는데구나. 라는 생각이 또 아쉬운 마음입니다. 아쉬움은 아쉬움대로 넘기면서 이제 다가올 2017년 새해를 기대해 봅니다. 미주동창회가 미국과 한국을 향해 소리를 외쳐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그 날을 꿈꿉니다.

편집장

2차년도 회기: 동창회비 (2016. 7 ~ 2017. 6)

11월 말까지 회비납부 739명 / 총회원 7019명										Tax Exempt - Federal TIN: 13-3859506										
동창회비:		박영희(음대 66)	이장길(치대 63)	북가주	김영철(의대 55)	이수호(보건 69)	정태영(문리 71)	노영일(의대 62)	김용현(약대 87)	정평희(공대 71)										
남가주 S.CA/NV	박우성(상대 77)	이재권(법대 56)	SAN FRANCISCO	김예슬(의대 61)	김용술(상대 56)	이영숙(간호 56)	조성호(공대 85)	문병훈(사대 47)	명인재(인문 75)	조화유(문리 61)										
	박은숙(미대 62)	이재룡(공대 71)	강명식(의대 61)	김용술(상대 56)	이윤순(의대 52)	주창준(의대 56)	박준환(의대 55)	성흥환(수의 75)	진금섭(약대 57)	진금섭(약대 57)										
강경수(법대 58)	박인수(농대 64)	이재선(농대 58)	강재호(상대 57)	김용연(문리 63)	이유성(사대 57)	최선희(문리 69)	배영섭(의대 54)	송용재(의대 63)	최경수(문리 58)	최경수(문리 58)										
강동순(법대 59)	박인창(농대 65)	이정근(사대 60)	공순화(사범 56)	김우영(상대 60)	이재원(법대 60)	이재진(의대 59)	이정호(의대 58)	서상현(의대 65)	안순자(문리 56)	최규식(상대 64)										
강정훈(미대 56)	박일우(의대 70)	이정화(공대 52)	권오형(사대 61)	김유순(간호 64)	이재진(의대 59)	이정호(의대 58)	송준영(문리 52)	이계석(의대 67)	이명진(공대 61)	하윤정(인문 89)										
강중경(공대 48)	박재인(약대 60)	이종도(간호 69)	김영춘(수의 64)	김정희(간호 69)	이종훈(공대 56)	이종훈(공대 56)	송재욱(의대 56)	이승자(공대 62)	한외성(수의 60)	한외성(수의 60)										
강희창(공대 57)	박종식(의대 46)	이준호(상대 65)	김윤범(의대 54)	김종현(법대 57)	이종훈(공대 56)	이종훈(공대 56)	신동화(문리 55)	이영웅(의대 56)	한정민(농대 81)	한정민(농대 81)										
고석규(치대 65)	박찬호(농대 63)	이종희(간호 63)	김정복(사범 55)	김창성(의대 55)	이종훈(공대 56)	이종훈(공대 56)	유 환(농대 56)	신석규(문리 54)	장극기(의대 64)	홍영석(공대 55)										
고영순(음대 59)	박창규(약대 59)	이창무(공대 54)	김정희(음대 56)	김창성(의대 55)	이종훈(공대 56)	이종훈(공대 56)	이희덕(농대 67)	오동환(의대 65)	최인갑(공대 57)	최인갑(공대 57)										
고용규(의대 69)	박취서(약대 60)	이재진(문리 55)	김현왕(공대 64)	김창성(의대 55)	이종훈(공대 56)	이종훈(공대 56)	전종희(공대 56)	유동환(수의 68)	워싱턴 DC	워싱턴 DC										
고재천(공대 57)	박태호(치대 66)	이정(농대 61)	남승채(공대 66)	김현중(공대 63)	이태안(의대 55)	이태안(의대 55)	조진태(문리 57)	이덕수(문리 58)	DC/MD/VA/WV	DC/MD/VA/WV										
공대용(공대 65)	박태호(상대 69)	이정(농대 61)	노문희(사대 66)	김현중(공대 63)	이태안(의대 55)	이태안(의대 55)	조진태(문리 57)	이민우(의대 61)	강길종(약대 69)	강길종(약대 69)										
곽웅길(문리 59)	박희자(음대 68)	이혜영(공대 56)	박정룡(약대 63)	문석면(의대 52)	임광록(간호 72)	임광록(간호 72)	조진태(문리 57)	이민우(의대 61)	강길종(약대 69)	강길종(약대 69)										
권기상(경영 72)	방명진(공대 73)	이희충(공대 68)	박정룡(약대 63)	문석면(의대 52)	임광록(간호 72)	임광록(간호 72)	조진태(문리 57)	이민우(의대 61)	강길종(약대 69)	강길종(약대 69)										
권영재(의대)	배병욱(음대 58)	임동규(미대 57)	박시규(약대 55)	민발식(의대 60)	임광록(간호 72)	임광록(간호 72)	조진태(문리 57)	이민우(의대 61)	강길종(약대 69)	강길종(약대 69)										
권처규(치대 51)	백옥식(음대 55)	임동희(약대 55)	박시규(약대 55)	민발식(의대 60)	임광록(간호 72)	임광록(간호 72)	조진태(문리 57)	이민우(의대 61)	강길종(약대 69)	강길종(약대 69)										
김건진(문리 62)	백옥자(음대 71)	임문빈(상대 58)	박시규(약대 55)	민발식(의대 60)	임광록(간호 72)	임광록(간호 72)	조진태(문리 57)	이민우(의대 61)	강길종(약대 69)	강길종(약대 69)										
김경수(치대 58)	백혜란(미대 70)	임진환(치대 68)	박시규(약대 55)	민발식(의대 60)	임광록(간호 72)	임광록(간호 72)	조진태(문리 57)	이민우(의대 61)	강길종(약대 69)	강길종(약대 69)										
김경숙(간호 68)	변영근(수의 52)	임창희(공대 73)	안병협(공대 58)	박수안(의대 59)	장화자(간호 60)	장화자(간호 60)	조진태(문리 57)	이민우(의대 61)	강길종(약대 69)	강길종(약대 69)										
김광은(음대 56)	임화식(사대 60)	안호성(문리 58)	안병협(공대 58)	박수안(의대 59)	장화자(간호 60)	장화자(간호 60)	조진태(문리 57)	이민우(의대 61)	강길종(약대 69)	강길종(약대 69)										
김규현(법대 53)	서영석(문리 61)	장소현(미대 65)	오명주(간호 77)	박승화(간호 69)	장화자(간호 60)	장화자(간호 60)	조진태(문리 57)	이민우(의대 61)	강길종(약대 69)	강길종(약대 69)										
김기태(의대 52)	서지원(공대 69)	장정용(미대 64)	장정용(미대 64)	장정용(미대 64)	장정용(미대 64)	장정용(미대 64)	조진태(문리 57)	이민우(의대 61)	강길종(약대 69)	강길종(약대 69)										
김기형(상대 75)	선우원근(공 66)	장준(인문 85)	원미량(미대 65)	박진우(상대 77)	정인식(상대 58)	정인식(상대 58)	조진태(문리 57)	이민우(의대 61)	강길종(약대 69)	강길종(약대 69)										
김동산(법대 59)	성주경(상대 68)	전상욱(사대 52)	성주경(상대 68)	성주경(상대 68)	성주경(상대 68)	성주경(상대 68)	조진태(문리 57)	이민우(의대 61)	강길종(약대 69)	강길종(약대 69)										
김병연(공대 68)	손기용(의대 55)	정동규(공대 57)	정동규(공대 57)	정동규(공대 57)	정동규(공대 57)	정동규(공대 57)	조진태(문리 57)	이민우(의대 61)	강길종(약대 69)	강길종(약대 69)										
김석두(농대 58)	손영아(음대 85)	정연웅(상대 63)	정연웅(상대 63)	정연웅(상대 63)	정연웅(상대 63)	정연웅(상대 63)	조진태(문리 57)	이민우(의대 61)	강길종(약대 69)	강길종(약대 69)										
김석훈(법대 59)	손학식(공대 61)	정예현(상대 63)	이현숙(사대 62)	변건웅(공대 65)	조정환(수의 58)	조정환(수의 58)	조진태(문리 57)	이민우(의대 61)	강길종(약대 69)	강길종(약대 69)										
김선기(법대 59)	신동국(수의 76)	정미현(문리 66)	정미현(문리 66)	정미현(문리 66)	정미현(문리 66)	정미현(문리 66)	조진태(문리 57)	이민우(의대 61)	강길종(약대 69)	강길종(약대 69)										
김성복()	신상화(공대 58)	정재화(상대 59)	정재화(상대 59)	정재화(상대 59)	정재화(상대 59)	정재화(상대 59)	조진태(문리 57)	이민우(의대 61)	강길종(약대 69)	강길종(약대 69)										
김세중(공대 50)	신영찬(의대 63)	정재훈(공대 64)	정재훈(공대 64)	정재훈(공대 64)	정재훈(공대 64)	정재훈(공대 64)	조진태(문리 57)	이민우(의대 61)	강길종(약대 69)	강길종(약대 69)										
김성욱(간호 81)	신정식(상대 64)	정철룡(의대 55)	정철룡(의대 55)	정철룡(의대 55)	정철룡(의대 55)	정철룡(의대 55)	조진태(문리 57)	이민우(의대 61)	강길종(약대 69)	강길종(약대 69)										
김성환(의대 65)	신정연(미대 61)	정태무(사대 44)	정태무(사대 44)	정태무(사대 44)	정태무(사대 44)	정태무(사대 44)	조진태(문리 57)	이민우(의대 61)	강길종(약대 69)	강길종(약대 69)										
김수영(사범 57)	심상은(상대 54)	정현진(간호 68)	정현진(간호 68)	정현진(간호 68)	정현진(간호 68)	정현진(간호 68)	조진태(문리 57)	이민우(의대 61)	강길종(약대 69)	강길종(약대 69)										
김순길(법대 54)	안영일(의대 63)	정형태(상대 69)	정형태(상대 69)	정형태(상대 69)	정형태(상대 69)	정형태(상대 69)	조진태(문리 57)	이민우(의대 61)	강길종(약대 69)	강길종(약대 69)										
김순자(치대 57)	양승문(공대 65)	정철(공대 64)	정철(공대 64)	정철(공대 64)	정철(공대 64)	정철(공대 64)	조진태(문리 57)	이민우(의대 61)	강길종(약대 69)	강길종(약대 69)										
김영(수의 63)	양은택(의대 58)	제영혜(가정 71)	제영혜(가정 71)	제영혜(가정 71)	제영혜(가정 71)	제영혜(가정 71)	조진태(문리 57)	이민우(의대 61)	강길종(약대 69)	강길종(약대 69)										
김영덕(법대 58)	양창호(상대 54)	조동준(의대 57)	조동준(의대 57)	조동준(의대 57)	조동준(의대 57)	조동준(의대 57)	조진태(문리 57)	이민우(의대 61)	강길종(약대 69)	강길종(약대 69)										
김영희(사범 56)	양태준(상대 56)	조만영(상대 58)	조만영(상대 58)	조만영(상대 58)	조만영(상대 58)	조만영(상대 58)	조진태(문리 57)	이민우(의대 61)	강길종(약대 69)	강길종(약대 69)										
김용태(공대 60)	양동태(농대 74)	조소하(치대 64)	조소하(치대 64)	조소하(치대 64)	조소하(치대 64)	조소하(치대 64)	조진태(문리 57)	이민우(의대 61)	강길종(약대 69)	강길종(약대 69)										
김원경(약대 59)	오송자(사대 59)	조재국(농대 67)	조재국(농대 67)	조재국(농대 67)	조재국(농대 67)	조재국(농대 67)	조진태(문리 57)	이민우(의대 61)	강길종(약대 69)	강길종(약대 69)										
김인중(농대 74)	오창준(간호 60)	조재길(사대 61)	조재길(사대 61)	조재길(사대 61)	조재길(사대 61)	조재길(사대 61)	조진태(문리 57)	이민우(의대 61)	강길종(약대 69)	강길종(약대 69)										
김일영(의대 65)	오우식(상대 61)	조지식(공대 60)	조지식(공대 60)	조지식(공대 60)	조지식(공대 60)	조지식(공대 60)	조진태(문리 57)	이민우(의대 61)	강길종(약대 69)	강길종(약대 69)										
김정재(치대 62)	위종민(공대 64)	조종서(간호 61)	조종서(간호 61)	조종서(간호 61)	조종서(간호 61)	조종서(간호 61)	조진태(문리 57)	이민우(의대 61)	강길종(약대 69)	강길종(약대 69)										
김정애(간호 69)	유석홍(상대 61)	주정래(상대 65)	주정래(상대 65)	주정래(상대 65)	주정래(상대 65)	주정래(상대 65)	조진태(문리 57)	이민우(의대 61)	강길종(약대 69)	강길종(약대 69)										
김종태(상대 58)	유익영(문리 56)	지인수(상대 59)	지인수(상대 59)	지인수(상대 59)	지인수(상대 59)	지인수(상대 59)	조진태(문리 57)	이민우(의대 61)	강길종(약대 69)	강길종(약대 69)										
김종표(법대 58)	유재현(상대 67)	차종환(사대 54)	차종환(사대 54)	차종환(사대 54)	차종환(사대 54)	차종환(사대 54)	조진태(문리 57)	이민우(의대 61)	강길종(약대 69)	강길종(약대 69)										
김준표(공대 62)	유지형(상대)	최종홍(공대 60)	최종홍(공대 60)	최종홍(공대 60)	최종홍(공대 60)	최종홍(공대 60)	조진태(문리 57)	이민우(의대 61)	강길종(약대 69)	강길종(약대 69)										
김창무(음대 53)	육태식(의대 61)	최미순(간호 59)	최미순(간호 59)	최미순(간호 59)	최미순(간호 59)	최미순(간호 59)	조진태(문리 57)	이민우(의대 61)	강길종(약대 69)	강길종(약대 69)										
김태윤(법대 53)	윤경진(법대 55)	최복영(사대 56)	최복영(사대 56)	최복영(사대 56)	최복영(사대 56)	최복영(사대 56)	조진태(문리 57)	이민우(의대 61)	강길종(약대 69)	강길종(약대 69)										
김태수(의대 57)	윤성철(상대 60)	최용순(간호 69)	최용순(간호 69)	최용순(간호 69)	최용순(간호 69)	최용순(간호 69)	조진태(문리 57)	이민우(의대 61)	강길종(약대 69)	강길종(약대 69)										
김홍목(공대 66)	윤용길(공대 55)	최환완(공대 57)	최환완(공대 57)	최환완(공대 57)	최환완(공대 57)	최환완(공대 57)	조진태(문리 57)	이민우(의대 61)	강길종(약대 69)	강길종(약대 69)										
김희자(간호 64)	이건일(의대 62)	최종권(문리 59)	최종권(문리 59)	최종권(문리 59)	최종권(문리 59)	최종권(문리 59)	조진태(문리 57)	이민우(의대 61)	강길종(약대 69)	강길종(약대 69)										
김희창(사대 63)	이광(공대 55)	최철(의대)	최철(의대)	최철(의대)	최철(의대)	최철(의대)	조진태(문리 57)	이민우(의대 61)	강길종(약대 69)	강길종(약대 69)										
김희창(공대 63)	이규달(의대 62)	최기환(공대 66)	최기환(공대 66)	최기환(공대 66)	최기환(공대 66)	최기환(공대 66)	조진태(문리 57)	이민우(의대 61)	강길종(약대 69)	강길종(약대 69)										
나두섭(의대 66)	이근웅(의대 61)	한규희(미대 68)	한규희(미대 68)	한규희(미대 68)	한규희(미대 68)	한규희(미대 68)	조진태(문리 57)	이민우(의대 61)	강길종(약대 69)	강길종(약대 69)										
나민주(음대 65)	이기재(사대 52)	한근배(공대 65)	한근배(공대 65)	한근배(공대 65)	한근배(공대 65)	한근배(공대 65)	조진태(문리 57)	이민우(의대 61)	강길종(약대 69)	강길종(약대 69)										
나성욱(문리 59)	이민성(상대 58)	한정현(치대 55)	한정현(치대 55)	한정현(치대 55)	한정현(치대 55)	한정현(치대 55)	조진태(문리 57)	이민우(의대 61)	강길종(약대 69)	강길종(약대 69)										
노정자(간호 70)	이미정(의대 78)	한종철(치대 62)	한종철(치대 62)	한종철(치대 62)	한종철(치대 62)	한종철(치대 62)	조진태(문리 57)	이민우(의대 61)	강길종(약대 69)	강길종(약대 69)										
노창호(공대 61)	이방기(농대 59)	한홍택(공대 60)	한홍택(공대 60)	한홍택(공대 60)	한홍택(공대 60)	한홍택(공대 60)	조진태(문리 57)	이민우(의대 61)	강길종(약대 69)	강길종(약대 69)										
문득수(공대 73)	이범식(공대 61)	한호동(공대 58)	한호동(공대 58)	한호동(공대 58)	한호동(공대 58)	한호동(공대 58)	조진태(문리 57)	이민우(의대 61)	강길종(약대 69)	강길종(약대 69)										
문병길(문리 61)	이병준(상대 55)	허영진(문리)	허영진(문리)	허영진(문리)	허영진(문리)	허영진(문리)	조진태(문리 57)	이민우(의대 61)	강길종(약대 69)	강길종(약대 69)										
문인일(공대 51)	이희희(법대 70)	최기흥(문리 44)	최기흥(문리 44)	최기흥(문리 44)	최기흥(문리 44)	최기흥(문리 44)	조진태(문리 57)	이민우(의대 61)	강길종(약대 69)	강길종(약대 69)										
민병돈(문리 58)	이성숙(공대 56)	홍선례(음대 70)	홍선례(음대 70)	홍선례(음대 70)	홍선례(음대 70)	홍선례(음대 70)	조진태(문리 57)	이민우(의대 61)	강길종(약대 69)	강길종(약대 69)										
민수봉(상대 55)	이소희(의대 61)	홍선선(약대 72)	홍선선(약대 72)	홍선선(약대 72)	홍선선(약대 72)	홍선선(약대 72)	조진태(문리 57)	이민우(의대 61)	강길종(약대 69)	강길종(약대 69)										

미주 동문 업소록

CA 남가주

공인회계사

CPA 김재영 공인회계사
김재영 (농대 62)

Tel. (213) 385-1985
2960 Wilshire Blvd. #300, LA, CA 90010

Kim & Kang CPA's
(김경무 강정욱 공인회계사)

김경무 (공대 69)

Tel. (213) 616-1390
3435 Wilshire Blvd. #1150 LA, CA 90010

AAMKO Consulting Co.
(강신용 공인회계사)

강신용 (사대 73)

Tel. (213) 380-3801
38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이강원 공인회계사

이강원 (인문대 76)

Tel. (213) 387-1234
3530 Wilshire Blvd #1414 LA, CA 90010

강호석 회계사무소

강호석(상대81), 김낙구(상대67), 강동순(법대59)

Tel. (213) 380-5060(LA),
(714) 530-3630(Garden Grove, CA)
12912B rockhurst St. #370 Garden Grove, CA 92840
(213-380-5060) 3600 Wilshire Blvd. #1004 LA, CA 90010

STANLEY Cha, CPA

차기민 (공대 85)

Tel. (213) 739-5700, (714) 525-1821
schacpa@gmail.com
3440 Wilshire Blvd. #807 LA, CA 90010
229 N. Euclid St. Fullerton, CA 92832

Jun Chang CPA & Associates, AC

장 준 (인문대 85)

Tel. (818) 772-2811, (213) 272-2460
jun@junchangcpa.com
19520 Nordhoff St. Suite 16, Northridge, CA 91324
3580 Wilshire Blvd. Suite 900 Los Angeles, CA 90010

재정 / 보험 / 컨설턴트

AXA Advisor
Paramount Planning Group
조임현 (간호대 72)

Tel. (213) 487-3253
3435 Wilshire Blvd. Ste.2500 LA, CA 90010
im.cho@axa-advisors.com

이영일(문리대 53)

Howard Y. Ree
3700 Wilshire Blvd., Suite 25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760-3700 Fax: (213) 383-2515
email: howardree@gmail.com

운송 / 유통 / 원자재

SeAH Steel America, Inc. (유통/강관도매)

이병준 (상대 55)

Tel. (949) 655-8000
2100 Main Street #100
Irvine, CA 92614

OR 오레곤

Flonomix Inc.
박희진 (농대 78)

Tel. (503) 648-0775
5897 NE Alder St., Hillsboro, OR 97124

식품 / 음식점

자연나들 Jayone Foods, Inc.
이승훈 (상대 74)

Tel. (562) 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엔지니어링 컨설팅 / 건축

Lee & Ro, Inc.
노명호 (공대 61)

Tel. (626) 912-3391
1199 S Fullerton Rd City of Industry, CA 91748

ACCU Construction, Inc.

염동해 (농대 74)

Tel. (714) 641-4730
1526 Brookhollow Dr, Santa Ana, CA 92705

의료 / 약국

실로암 병원 (Siloam Medical Clinic)
신경정신과 정근희(의대 64)

Christopher K.Chung MD. Tel. (213) 386-5002
2528 W.Olympic Blvd.,#103 LA CA 90006
drchung@yahoo.com

Beverly Cardiology Group

Il Young Kim MD (의대 65)

Diana Kim MD Tel. (323) 662-1175
3919 Beverly Blvd.,#100 LA CA 90004
www.beverlycardiology.com

정수만 암내과.혈액내과

정수만 (의대 66)

Tel. (714) 539-6414
12555 Garden Grove Blvd. #309
Garden Grove, CA 92843

Gilbert Pharmacy

최무식 (약대 66)

Tel. (714) 638-8230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Seoul Medical Group ★

차민영 (의대 76)

Tel: 213-480-7770
(877) 764-1405
520 S. Virgil Ave. #103 LA, CA 9000

나성약국 ★

임낙균 (약대 64)

Tel: (213) 387-3030
3030 W. Olympic Bl. #118 L.A. CA 90006

치과

황준오 DDS
황준오 (치대 73)

Tel. (408) 732-0493
877 W.Fremont Ave.#H3
Sunnyvale, CA 94087

Seonho Ha Prosthodontics

하선호 (치대 81)

Tel. (213) 365-1008
3240 Wilshire Blvd.# 510 LA, CA 90010
ddsshnp@yahoo.com

우주개발 / 기술

Tayco Engineering, INC
정재훈 (공대 64)

Tel. (714) 952-2240
10874 Hope St. PO Box 6034 Cyoreess, CA 90630
jchung@taycoeng.com
www.taycoeng.com

Link TV Media

김원탁(공대 65)

17607 Sherman Way #204 Van Nuys, CA 91406
Tel. (818) 768-5494 Fax. (818)768-5040
linkboxusa@gmail.com
www.linkboxusa.com

동물병원

Animal Medical Clinic
신통국 (수의대 76)

Tel. (714) 990-1411
3257 Associated Rd, Fullerton, CA 92835

Francis Animal Hospital

최재현 (수의대 66)

Tel. (909) 627-0951
5284 Francis Ave, Chino Hills, CA 91710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상봉 (수의대 67)

Tel. (510) 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 94805

변호사

신혜원 변호사
신혜원 (사대 81)

Tel. (213) 385-3773
3435 Wilshire Blvd. #2230 Los Angeles, CA 90010

한태호 변호사 법률그룹

Kenneth T.HAAN & Associates, APLC
한태호 변호사

Tel. (213) 639-2900, Fax. (213) 639-2909
3699 Wilshire Blvd. Ste.860 LA,CA 90010
www.haanlaw.com

부동산

Team Spirit Realty
Jennie Lee 이종모 (간호대 69) Realtor

Tel. (714) 396-0624
30 Corporate Park, Ste.207 Irvine, CA 92606
jenniecelee@gmail.com

마켓

Han Nam Chain Market
하기환 (공대 66)

Tel. 213-381-3610
2740 W. Olympic Bl. Los Angeles, CA 9006

기타

Turbo Air, Inc. ★
서치원 (공대 69)

Tel: 310-719-5422
3421 Oakridge Terrace, Calabasas CA 91302

라 캐나다 한인교회

독고원 (공대 65)

Tel. (818) 790-7320
1700 Foothill Blvd La Canada, CA 91011

클리닉

San Bernardo Foot Clinic INC.
이상대 (농대 80)

Tel. (909) 882-3800(B), (714) 323-8612(C)
2095 N. Waterman Ave.
San Bernadino, CA 92404

자동차 / 서비스

A.P.W. 자동차 부품

서동영 (사대 60)

Tel. (310) 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CA 북가주

두리 하나 결혼정보 정지선(상대 58)

'높은 성혼율과 많은 초혼, 재혼자 데이트 중.
서울대 동문과 동문자녀 특별발안'

Tel. (510) 224-0760
13766 Aurora Dr, San Leandro, CA 94577
www.2makes1.com / 1durihana@gmail.com

비영리법인 해양 극지에너지

ISOPE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Offshore and Polar Engineers
P.O. Box 189, Cupertino, California 95015-0189

Jin S Chung 정진수 (공대 56)
Ocean, Arctic, Energy
www.isopec.org, jschung@isopec.org

GA 조지아

Auto Plaza Group, INC.
이영진 (공대 76)

Tel. (404) 579-8282
4132 Bedford Hwy. Duluth, GA 30096

Wesley & Associates, CPA

윤태우

Tel. (770) 451-1850
3700 Crestwood Pkwy. Suite 380,
Duluth, GA 30096

PA 필라델피아

음식점

이즈미 일식당
최준몽 (공대 61)

Tel. (267) 408-7342
1222 Welsh Rd. North Wales, PA 19454
(ASSI Plaza 내)

동물병원 / 치료

Cottman Animal Hospital
주기록 (수의대 68)

Tel. (215) 745-9030
1012 Cottman Ave. Philadelphia, PA 19111

Blue Bell Family Dentistry

김순주 (치대 95)

Tel. (610) 278-1110
1732 Dekalb Pike, Blue Bell, PA 19422

건축

Timothy Haahs & Assoc.
손재옥 (생활과대 77)

Tel. (484) 342-0200
550 Township Line Rd. Ste.100 Blue Bell, PA 19422

NY / NJ (뉴욕 / 뉴저지)

공인회계사

Changsoo Kim, CPA P.C.

김창수 (약대 64)

Tel. (212) 760-1768, (917) 647-0606
38 W 32St Suite #900 New York NY 10001
changsookimcpa@hotmail.com

KL CPA & Associates LLC

이경림 (샬대 64)

Tel. (212) 768-9144
1430 Broadway Suite 306 New York, NY 10018

부동산

Evergreen Realty

이재원 (법대 60)

Tel. (201) 944-5353
242 Broad Ave.Palisades Park, NJ 07650

COSMO Realty

이재덕 (법대 60)

Tel. (201) 944-4949
258 Broad Ave.Palisades Park, NJ 07650
www.cosmorealty.com

Promise Realty

김도명 (농대 70)

조민형 (음대 84)

Tel. (201) 585-7766
172 Main Steet Fort Lee, NJ 07024
Email: Promise@DonaldRealty.com

리테일러

New York Golf Center

이전구 (농대 60)

Tel. (212) 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American Int'l Line, Inc.

윤병하 (농대 80)

Tel. (718) 995-7060
147-38 182nd St.Jamaica, NY 11413

NV 네바다

Best Care Dental

김영중 (치대 66)

Tel. (702) 384-2828, (702) 480-7115
5205S Durango Dr. #103 Las Vegas, NV 89113

치과

김성래 치과 (Closter Dental)

김성래 (치대 76)

Tel. (201) 666-2828
570 Plamont Rd. Closter Commons # C1, Closter, NJ 07624

계동휘종합치과(잇몸수술 전문의)

Wayne Kye D.D.S, M.S

계동휘 (치대 67)

Tel. (718) 898-9049
49-04 43rd Ave. Woodside, NY 11377

내과

백승원 위장내과

ANDREW S. BAIK M.D.

백승원 (의대 73)

Tel. (201) 302-9774, (732) 744-9090
1608 Lemoine Ave. #200 Fort Lee NJ 07024
1921 Oak Tree Rd. Edison NJ 08820

석창호 위장내과

Chang Ho Suk, M.D.

석창호 (의대 66)

Tel. (718) 461-6212
41-61 Kissena Blvd # 27, Flushing, NY 11355

심임보 심장내과

IN-BO SHIM, M.D.

심임보 (의대 77)

Tel. (201) 569-1800, (718) 836-0009
700 Palisade Ave 1St Floor Englewood Cliffs, NJ 07632
237 82nd St, Brooklyn, NY 11209

이재진 심장내과

Rhee, Jai Jeen, M.D.F.A.C.C.

이재진 (의대 58)

Tel. (718) 426-6464
37-25 75th Street, Jackson Heights, NY 11372

이창석 내과

Chang Suk Lee, M.D.

이창석 (의대 72)

Tel. (718) 762-4400
40-5 Bowne St, Flushing, NY 11354

재활의학

김치갑 카이로프랙

COMPREHENSIVE PAIN THERAPY CENTER

김치갑 (의대 73)

Tel. (201) 541-1111
475 Grand Ave. Englewood NJ 07631

김승관통증 및 재활의학병원

Seung K. Kim, M.D.

김승관 (의대 70)

Tel. (718) 321-2870
35-20 147th St #1D, Flushing, NY 11354

한의원

이수호 한의원

이수호 (보건대 69)

Tel. (718) 353-6207
36-32 Union St. #3F Flushing, NY 11354

동물병원

RIDGEFIELD PARK
ANIMAL HOSPITAL

김기택 (수의 81)

Tel. 201-814-0095
199 Main st, Ridgefield Park NJ 07660

비뇨기과

윤세웅 비뇨기과

Richard Sei-Oung Yoon, M.D. Ph.D. D.D.

윤세웅

Tel. (718) 335-3333
75-21 Broadway #1, Elmhurst, NY 11373
100-25 Queens Blvd. #16C, Forest Hills, NY 11375

산부인과

정산부인과 전문의

Joseph Chong, M.D.F.A.C.O.G.

정조셉

Tel. (201) 461-5770
44 Sylvan Ave. #2-A, Englewood Cliffs, N.J 07632

알리지

이혁업 알리지 전문의

Hyok Yup Lee, MD. F.A.

이혁업 (의대 73)

Tel. (201) 568-3800, (718) 321-7366
385 Sylvan Ave. E.C., NJ 07632
144-24 37th Ave. Room#LD Flushing, NY 11354

소아과

민재홍 소아과

Jae Hong Min, M.D., P.C.

민재홍

Tel. (718) 353-5300
34-09 Murray St #1fl, Flushing, NY 11354

박범열 소아과

Beum Yul Park, M.D.

박범열 (의대 75)

Tel. (718) 229-1188, (718) 899-4600
211-50 45th Dr. Bayside, NY 11361
40-10 70th St. Woodside, NY 11377

박종호 소아과

C. Thomas Park, M.D.

박종호 (의대 79)

Tel. (201) 242-1002
44 Sylvan Ave, Englewood Cliffs, NJ 07632

MD/VA 워싱턴 DC

치과

이준영 치과

이준영 (치대 74)

Tel. (301) 220-2828, (301) 926-9692
6201 Greenbelt Rd. SieU-10, College Park, MD 20740
8931 Shady Grove Ct. Gaithersburg, MD 20877

엔지니어링 컨설팅

Drivetech, Inc

엄달용 (공대 69)

Tel. (703) 489-2474
25492 Carrington Drive, South Riding, VA 20152
www.drivetechinc.com

재정 / 보험 / 컨설턴트

C & N 종합보험 / 뉴욕 라이프

정세근 (자연대 82)

Tel. (703) 663-8400(O), (703) 785-8467(C)
7023 Little River Tpke, #350, Annandale, VA 22003

Fairway Asset Corporation

남욱현 (경영대 84)

Tel. (301) 279-6969
414 Hungerford Dr. #104 Rockville, MD 20850
www.faclloan.com

부동산

BPS Appraisal Company

박평일 (농대 69)

Tel. (703) 750-1707
7518 Evans Ford Rd. Clifton, VA 20124

내가 번 돈 내가 쓰자!
다리 떨리기 전에 세계일주!

당신이 꿈꾸는 모든 여행이 가능합니다!

5대강 6대주에 걸친 폭넓은 네트워크

전세계 파트너쉽으로 어느곳든 아주외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본사직원과 현지가이드의
입체시스템, 믿음직한 동행과 함께하세요.

33년 이상

전문성과 노하우

어느곳든 5스타급
서비스와 가이드

18년간의 미국 현지 여행

usajutour.com

213-388-4000

광고문의: (484)344-5500

<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회비 및 후원금 >

성명 :		단과대학 및 학원 :		입학연도 :		지부 :			
주소 :		전 주소 :							
업소이름 :		업소 주소 :							
전화 :		Email :							
동창회후원금		동창회비(구독료)		업소등록 광고비		일반광고		특별후원금	
☐ 연 \$200 ☐ 연 \$500 ☐ 연 \$1,000 ☐ \$ _____		☐ \$75 (1년: 2016.7~2017.6) ☐ \$75 (1년: 2017.7~2018.6) 1년: \$75 / 2년: \$150 ☐ 종신이사회비 (\$3,000이상)		☐ \$240 (2016.7~2017.6) ☐ \$240 (2017.7~2018.6) 1년: \$240 / 2년: \$480		*문의: 사무국 484-344-5500 Ext 302 Email: general@snuuaa.org		☐ Education (장학금) ☐ Charity (나눔) ☐ Brain Network 후원금 ☐ 모교발전기금	
보낼 곳 : SNUAA-USA, 550 Township Line Rd, Suite 100, Blue Bell, PA 19422 USA Tel: 484-344-5500 Ext 304 Fax: 484-342-0222 Email: general@snuuaa.org									
지불 방법 : Card 또는 Check / Pay to the order of 'SNUAA-USA'									
Visa () Master () American Express () 기타 () 전화 484-344-5500 Ext 302						or Check No.:			
Card No.:				Security Code :			Expire Date:		
Cardholder's Name :				Date :					
Address No. Only				Zip			Pay to order of 'SNUAA-USA'		

Purpose(목적) : Charity(나눔) · Education(배움) · Friendship(사귀)					
서울대 미주동창회					
역대회장					
박윤수(문) · 강수상(의) · 이병준(상) · 오인석(법) · 오인석(법) · 이용락(공) 오희조(치) · 이영묵(공) · 이진구(농) · 송승영(문) · 김은중(상) · 오인환(문)					
명예회장 : 오인환(문)					
제13대 회장: 손재옥(가정)					
수석 부회장(차기 회장) 윤상래(수의) 후원회 부회장 제영혜(가정) Brain Network 담당 부회장 하용출(문) 사회봉사 담당 부회장 황선희(공) 고문 전방남(상) · 고병은(문)					
집행부 : 사무총장 차임경(가정)					
총무국장 심희진(음) 사업국장 한중희(공) 조직국장 백옥자(음) 섭외국장 박형준(공) 재무국장 이상숙(가정) 특별사업국장 허유선(가정) IT개발위원장 김원영(미) 사무장 서경희 (Webmaster)					
히보 : 발행인 손재옥(가정)					
편집위원장 김정현(공) 주필 정홍택(상) 편집위원 김진우(공) · 심희진(음) · 이상봉(문) · 이상숙(가정) 정덕준(상) · 정태광(공) · 지재원(사) · 한정민(농) 황선희(공) · 허유선(가정) · 현명역(공) · 홍선례(음)					
편집/디자인 이혜림					
논설위원장 : 이항열(법)					
논설위원 고병철(법) · 김일훈(의) · 김용현(경) · 김창수(약) 민경훈(법) · 유재중(법) · 윤상래(수의) · 이석구(문) 이원영(정) · 이채진(문) · 장석정(법) · 정홍택(상) 조동준(의) · 차민영(의) · 최용완(공) · 하용출(사)					
회칙 위원회 : 위원장 한재은(의)					
위원 김병연(공) · 김용현(상) · 서종민(공) 이강원(공) · 이민연(법) · 함은선(음)					
인선 위원회 : 위원장 오인환(직전 회장)					
오인환(직전회장) · 손재옥(현 회장) · 윤상래(차기회장) 정승규(공) · 김병연(공) · 민준기(공) · 이상강(의)					
장학 위원회 : 위원장 손재옥(현 회장)					
오인환(직전회장) · 윤상래(차기회장) · 이상강(의) 이원섭(농) · 강창석(의)					
포상 위원회 : 위원장 손재옥(현 회장)					
각 지역 지부장					
모교 발전기금 위원회 : 위원장 손재옥(현 회장)					
오인환(직전회장) · 윤상래(차기회장) · 이상강(의) 이원섭(농) · 강창석(의)					
감사					
주기목(수의) · 박영철(농)					



jayone.com

한인대표 식품기업
자연나라로 성장 하겠습니다!

대표: 이승훈 (상대 74)

Tel: 562-633-7400

**RIDGEFIELD PARK
ANIMAL HOSPITAL**

Dr. Paul. Kim, D.V.M
김기택 (수의대 81)

Phone 201-814-0095
Grooming 201-814-1377

Office Hours by Appointment
Mon - Fri. 9:00~7:00
Sat. 9:00~2:00

199 Main Sreet. Ridgefield Park,
NJ 07660

서울대 동문 10% 할인

환자이긴 하지만 가까운 당신

가정환해 듀오

LA지사 3055 Wilshire Blvd. #505 LA, CA 90010 / 뉴욕지사 2050 Center Ave. Suite 540 Fort Lee, NJ 07024

KISS®

“성장하는 기업”

25년간 세계 정상의 뷰티브랜드로 성장한

여러분과 함께 자녀세대의 미래를 열어갈 글로벌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호 (62) 신규천 (73) 한규상 (84) 김영훈 (93)

KISS® KISS PRODUCTS, INC., 57 Seaview Blvd., Port Washington, NY 11050 • www.KISSusa.com